

2023학년도 국토교육 및 지리 동아리  
'모래내시장 도보 답사 및 플로깅 활동' 자료집

# 모래내시장을 통해 전주의 도시 개발과 도시화를 이해하기

일자 : 2023년 8월 30일(수)  
+ 9월 13일(수)

지역 : 전주 모래내시장

학번 : \_\_\_\_\_

이름 : \_\_\_\_\_



전주여자고등학교



# 차례

<b>안전 교육 및 안내 사항</b>	.....	3
<b>전북 톺아보기</b>	.....	9
1. 전북의 공간 정보	.....	11
2. 전북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	.....	11
3. 전북의 지형	.....	12
4. 전북의 기후	.....	13
5. 전북의 인구	.....	13
6. 전북특별자치도	.....	15
<b>전주 톺아보기</b>	.....	17
1. 전주의 지리 정보	.....	19
2. 전주의 인구	.....	28
3. 전주의 도시 개발	.....	34
4. 지명, 시설의 이전 또는 신설, 학교를 통해 단서 찾기	.....	41
<b>모래내시장 톺아보기</b>	.....	49
1. 모래내	.....	51
2. 모래내시장	.....	51
<b>참고 자료</b>	.....	56



# 안전 교육 및 안내 사항



# 2023학년도 국토교육 및 지리 동아리

## 「모래내시장 도보 답사 및 플로깅 활동」 안전 교육

전주여자고등학교

1. 주제 : 모래내시장을 통해 전주의 도시 개발과 도시화를 이해하기

### 2. 목적

- 가. 답사 준비 과정을 통해 전주의 도시 개발 역사와 도시화의 특징을 인지한다.
- 나. 답사를 통해 모래내시장에 어떤 기능체가 입지하는지 파악한다.
- 다. 플로깅 활동을 통해 생태시민으로서 환경 보호를 실천한다.
- 라. 답사 정리 과정을 통해 학교 주변 지역의 특징과 주민들의 삶을 이해한다.
- 마. 위 과정을 통해 학교 주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곳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 3. 운영 계획

- 가. 운영 대상 : 1, 2학년 학생 총 12명(국토교육 동아리 생생지리 5명, 지리구요 7명)
- 나. 답사 안내 및 안전교육 : 2023년 8월 25일(금) 18:00~19:00 (2-9반 교실)
- 다. 1차 답사 및 플로깅 활동 : 2023년 8월 30일(수) 14:30~16:20
- 라. 2차 답사 및 플로깅 활동 : 2023년 9월 13일(수) 14:30~16:20
- 마. 답사 정리 및 보고회 : 2023년 9월 20일(수) 14:30~16:20 (국제융합교실)

### 4. 답사 및 플로깅 활동 코스



(지도 1) 모래내시장 도보 답사 및 플로깅 코스

## 5. 개인 준비물

- 1) 물병(생수 포함), 물병 보관용 가방
- 2) 답사 자료집, 간단한 필기도구
- 3) 우천 시 우산 또는 우비
- 4) 청소년증( 또는 사진이 있는 재학증명서)
- 5) 필요한 경우 모자 또는 양산

## 6. 안전한 답사와 플로깅 활동을 위한 유의 사항

가. 전주여자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공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한다.

나. 집합 장소에서는 시간을 잘 지키고 인원 파악을 정확히 하여 함께 움직인다.

다. 이동 중 안전 수칙

- 1) 도보 이동 시 후진 차량이나 이동 차량에 주의한다.
- 2) 도보 이동 시 질서를 지켜 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3)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 4) 보행자 전용도로로 다니며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힘쓰고,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거나 가져간다.

마. 청소년 유해업소 및 소피어나 단순한 놀이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바. 개인행동을 하지 않는다. 특별한 용무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인솔교사의 허락을 받고 행동한다.

사. 함부로 음식물을 사 먹지 않으며, 변질된 음식에 주의한다.

아. 고가의 귀중품은 가져오지 않고, 소지품 분실에 유의한다.

자. 답사 종료 후 바로 학교로 복귀하거나 귀가한다.

차. 복장 관련 유의사항

- 1) 교복 또는 간편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다.
- 2) 신발은 운동화를 신고, 발목 부상에 유의한다.

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 1) 응급상황 발생 시 교사 및 주변 사람들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한다.  
- 담당 교사 연락처: 010-3479-6345(최미라)
- 2) 응급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119 혹은 경찰서에 신고한다.

파. 플로깅 활동 시 주의점

- 1) 독성이 있거나 위험한 쓰레기가 있는지 체크한다. 문제가 되는 쓰레기라면, 인솔교사에게 문의한다.
- 2) 쓰레기를 줍는 도중에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부상당하지 않도록 한다.

타. 주민이나 상인들이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도한 사진 촬영과 인터뷰를 지양한다.

하.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휴식이 필요하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인솔교사에게 바로 이야기한다.

## 7. 참가 학생 명단

순	학번	이름	모듬
1	10227	홍진	1모듬
2	10228	홍빈	
3	10404	김나	
4	10419	이주	2모듬
5	10422	이아	
6	10422	이영	
7	20406	김연	3모듬
8	20513	이현	
9	20516	임경	
10	20801	김은	4모듬
11	20818	허우	
12	20913	황인	

(표 1) 참가 학생 명단

## 8. 답사 미션

- 1) 답사 전에 모래내시장과 관련된 지리적 질문을 2가지 이상 만들어 패들렛에 업로드한다.
- 2) 답사 과정에서 모래내시장에 어떤 기능이 입지해 있는지를 54쪽의 (지도 20)과 55쪽의 (표 7)에 표시한다. 답사 후 이 지도를 사진으로 찍어서 패들렛에 업로드한다.
- 3) 답사 틈틈이 우리 모듬의 활동 사진 및 단체 사진을 찍어서 패들렛에 업로드한다.
- 4) 답사 후 답사 소감을 패들렛에 남긴다
- 5) 1)번~4)번 미션 관련 제출 방법
  - ① 아래쪽의 QR코드를 촬영한 뒤 패들렛으로 접속한다.
  - ② 관련 섹션 아래에 있는 더하기 아이콘을 누른다.
  - ③ 답변을 작성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패들렛에 올린다.





# 전북 튜아보기



## 1. 전북의 공간 정보



[지도 2] 전북의 위치



[지도 3] 전북의 시·군 위치

[지도 2]와 같이 전북은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다. 동남쪽은 경남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과 경북의 김천시와 소백산맥의 주능선인 반야봉, 토끼봉, 명선봉, 백운산, 남덕유산, 무룡산 등으로 경계를 이룬다. 남쪽은 전남의 영광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과 접해 있으며 북쪽은 충남의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충북의 영동군과 접해 있다. 서쪽은 황해를 건너 중국과 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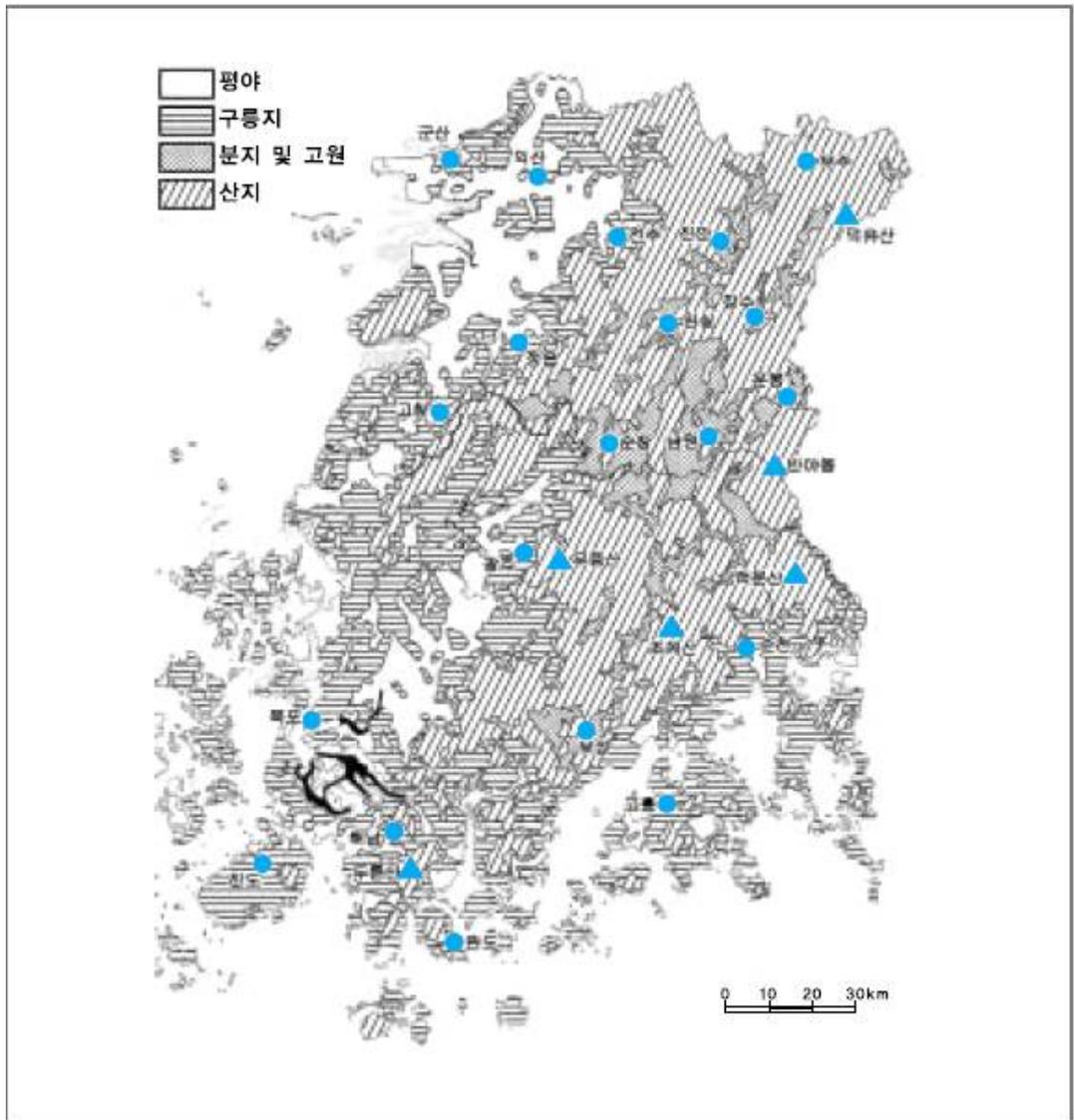
## 2. 전북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

전북은 순창군 풍산면 삼촌리(북위 35° 18')를 최남단으로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북위 36° 9') 사이에 걸쳐 있으며, 동으로는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동경 127° 55'), 서쪽으로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동경 125° 58') 사이에 있다. 남북보다 동서가 약간 긴 지형을 갖고 있다.

남한의 면적은 99,720km<sup>2</sup>이며 전북의 면적은 8,069km<sup>2</sup>이다. 전국 대비 전북의 면적은 약 8.09%를 차지한다. 전북의 토지 이용을 보면, 임야 56.0%, 논 19.3%, 밭 8.0%, 도로 3.5%, 대지 2.5%, 기타 10.7%를 차지한다.

[지도 2]와 같이 전북은 14개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市)는 전주·익산·군산·정읍·남원·김제 6개이며, 군(郡)은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8개이다. 이중 전주시는 전북도청 소재지이며, 전북의 최고차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 3. 전북의 지형



(지도 4) 호남 지방의 지형

[지도 3]과 같이 전북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계단식 지형을 이루고 있다. 서쪽에 군산반도, 진봉반도, 변산반도 등이 있으며 동쪽에 소백산맥 노령산맥, 진안분지 등이 있다. 지형의 높낮이를 비율을 따져보면, 100m 이하의 평지가 약 51%, 100~500m까지의 산지가 33%, 500~1,000m 이상의 지대가 13%, 1,000m 이상의 고지가 3%를 차지하고 있어 평야 지대가 비교적 많다.

100m 내외의 낮은 준평야는 익산, 김제, 정읍에 넓게 펼쳐져 있어 호남평야의 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쌀의 주산지로서 한국 농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평야의 넓이는 북으로 충남과의 경계인 익산시 용안면에서 노령산맥 남쪽 산록에 이르기까지 약 78km이

고 동서로는 완주군 고산 부근의 산록에서 서해안까지 약 48km에 이르는 광대한 넓이다. 전북의 도서는 102개(유인도 25개, 무인도 77개)이며 해안선은 577.1km(도서 해안선 329.9km 포함)이다. 전북에 산재한 대부분의 섬들이 군산시 옥도면(60.2%)과 부안군 위도면(38.2%)에 속해 있으며 변산 앞 바다에 위치한 위도(14.17km<sup>2</sup>)가 전북에서 가장 큰 섬이다.

전북의 지질의 경우, 동부 산간 지방은 변성암<sup>1)</sup>과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부 평야는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화강암<sup>2)</sup>을 기반암으로 두고 있다. 화강암은 지표상에 노출되었을 때 본래의 환경과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므로 비와 바람에 쉽게 약해진다. 즉, 화강암은 변성암, 퇴적암과 달리 풍화에 약한 암석이다. 전북의 서부에 평야가 넓게 발달한 것은 그 지역의 기반암인 화강암이 넓게 분포한다는 사실과 관련 깊다.

#### 4. 전북의 기후

기후적으로 전북의 서부 지역은 남부 해안형에 속하고 동부의 산악 지역은 남부 내륙형에 속한다. 서부 평야 지대는 황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내륙 지역에 비해 기온의 연교차가 적고 강우량이 적은 편이다. 반면 내륙 지역은 서해안에 비해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강우량이 많다. 기후의 지역 차가 남북 차이보다는 동서의 차이가 큰데, 이는 전북이 동고서저의 지형이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정읍 일대이다. 이는 한랭 건조한 대륙 고기압에서 북서 계절풍으로 이동해 온 공기가 황해를 통과하면서 수분을 공급받아 노령산맥 일대에서 상승하고 지형성 강설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겨울철 호남고속도로 정읍~장성 구간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가 나타난다.

#### 5. 전북의 인구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는 51,430,018명이며, 전북의 인구는 1,768,229명으로 전국 대비 약 3.44%를 차지한다. 전북의 시·군별 인구 분포는 [표 2]와 같다.

시·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인구(명)	650,596	273,266	262,264	104,895	81,662	77,755	93,041
시·군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인구(명)	52,366	50,019	26,687	26,470	24,501	23,435	23,435

[표 2] 전북의 인구 분포 (2023년, 전북도청,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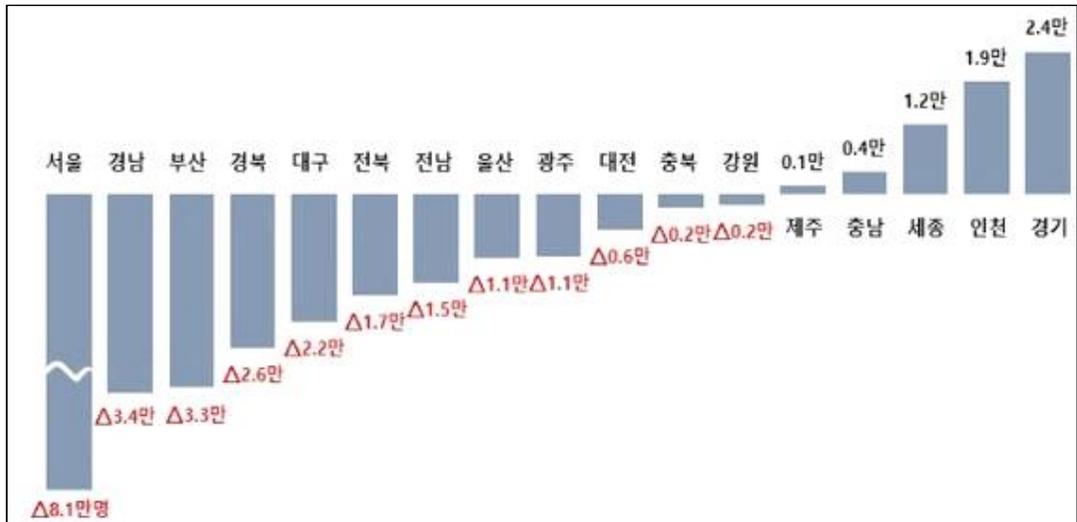
- 1) 변성암이란 ‘형태가 변한다’는 의미의 변성작용(metamorphism)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미 생성된 모암이 재결정화된 암석을 말한다. 변성작용 과정을 통해 모암은 광물학적·결정학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변화의 주된 원인은 열과 압력의 변화에 기인하며,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모두 모암(母巖)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변성암에는 편마암, 대리암 등이 있다.
- 2) 화강암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어 형성된 심성암이다. 우리나라는 중생대에 극심한 3번의 지각변동 즉, 송림 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 변동을 겪어 화강암이 풍부한 편이다.

전북에서 도청소재지인 전주시에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며, 전북 대비 전주시의 인구 비율은 37.0%이다. 전북 내에서 종주 도시화<sup>3)</sup> 현상이 나타나며,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인구 격차가 크다. 그리고 서부 평야 지역이 동부 산간 지역보다 인구가 많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가 2,500만 명대였고, 전북은 250만 명 선을 유지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 되었지만, 전북은 80여만 명이 줄어서 17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프 1)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2022년, 행정안전부, 단위 : 명)



(그래프 2)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증감 현황(2022년, 행정안전부, 단위 : 명)

전북의 인구는 2000년 이후 매월 3,000~5,000명씩 줄어들고 있다. 전국적 현상인 저출산 문제 외에도 전북에 청년층 인구 유출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종주 도시화는 수위 도시(인구 규모에 따라 순위를 매겼을 때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의 인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불균형 상태를 말한다.

전북의 청년층(18~39세) 인구는 2018년~2021년까지 5년간 67,752명 감소했다. 전북 인구가 매년 17,000여 명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층은 그중 16,938명으로 주로 취업과 학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면서 인구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 유출 현상과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 인구의 꾸준한 역외 유출은 지역 소멸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2년 말 17개 시·도 중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곳은 6곳으로, 전남(노년 인구 비율 25.2%), 경북(23.8%), 전북(22.3%), 강원(21.7%), 부산(21.5%), 충남(20.6%)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이 고령화지수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청년들이 다 떠나고 남은 사람이 얼마 없어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에게 농사를 맡겨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전북 지역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존폐 위기에 몰렸다. 2023학년도 전북지역 초등학교 중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곳은 215곳으로, 전체 학교(422교)의 50.9%에 달했다. 이 같은 초등학교 신입생 기근 현상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주(6곳), 군산(21곳), 익산(25곳) 등도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6.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권 확대, 중앙권한 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부여 등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지역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아 운영되는 지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출범)와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출범), 강원특별자치도(2023년 출범)가 있다. 전북의 경우,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정부가 2023년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을 공포했다. 그 결과 2024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5개의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5개의 메가시티에는

-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② 부산-울산권(부산, 울산, 경남)
- ③ 대구권(대구, 경북)
- ④ 대전-세종-청주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 ⑤ 광주권(광주, 전남)

이 있다. 이 경우 5개의 메가시티에 들어가지 못하는 권역이 생기는데,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세 곳에 대해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독자적인 지역권을 보장하고 권역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했다.

즉, 정부가 제시하는 5극 3체제는 중부권(세종, 대전, 충청), 동남권(경남, 부산, 울산), 대경권(대구, 경북), 호남권(광주, 전남),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등을 5대 초광역 메가시티로 재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평화특별권역, 새만금·전북 특별 권역 3곳을 특별권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글로벌 경제 도시’라는 비전을 세우고 7편 230여 개의

법조문을 구성했다. 이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 산업 진흥’, ‘생명경제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분권 강화’ 등 다섯 개 분야로 구성된다. 여기서 생명경제는 친환경을 활용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방식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는 에너지 생산을 청정에너지, 저탄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우리, 공동체, 지구가 상생·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를 뜻한다.

한편 경기 북부 지역과 충청도 메가시티의 권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특별자치도로 지정받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전주 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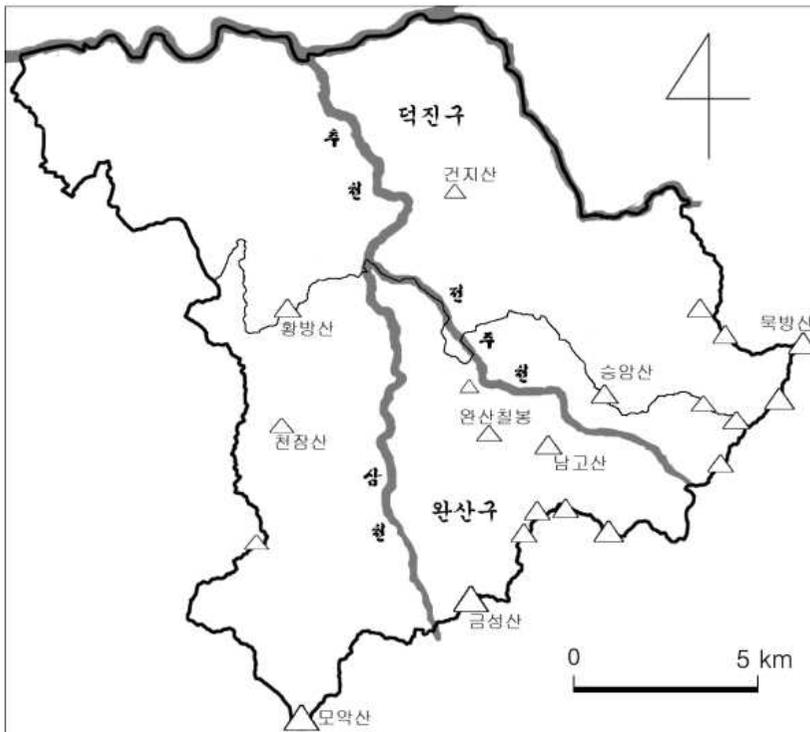


# 1. 전주의 지리 정보

## 1) 전주의 위치와 지형적 특징

전주시는 우리나라 남부 지역 중 호남 지역의 산지와 평야의 접경 지대에 위치한다. 전북은 노령산맥을 경계로 동부 산간 지대와 서부 평야 지대로 나뉘지는데, 전주는 산지-평야의 경계 지대인 노령산맥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전주시역의 서쪽 끝은 도도동의 마삼천으로 동경 126° 59'이고, 동쪽 끝은 우아동의 묵방산(521m)로 동경 127° 14'이다. 남쪽 끝은 중인동의 모악산(793m)으로 북위 35° 40'이고, 북쪽은 전미동의 고산천과 소양천의 합류점 부근으로 북위 35° 54'이다. 가장 긴 지점을 기준으로 동서 폭은 약 21.5km이고 남북의 폭은 약 19km이며, 면적은 206.2km<sup>2</sup>이다.



(지도 5) 전주시의 주요 지형

전주시의 남동부에 승암산(360m), 기린봉(271m), 남고산(275m) 등의 산지가 있고 서부에는 천잠산(153m), 천자봉(145m), 황방산(216m)이 남북 방향으로 분포한다. 남쪽에는 모악산(793m)과 금성산(320m)이 분포하면서 완주군, 김제시와 경계를 이룬다. 시가지 내부의 북부에 건지산(106m), 가련산(56m), 서부에 다가산(119m), 남부에 완산칠봉(163m) 등의 구릉이 분포한다. 전주의 중심 시가는 산지와 구릉에 둘러싸여서 전주 분지라고 불리어지기도 하나, 산지와 구릉이 200여m 고도차를 보여 분지라기보다는 곡구(谷口)로 보기도 한다.

한편 전주의 주요 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은 만경강 수계에 속하는 지류들이다. 전주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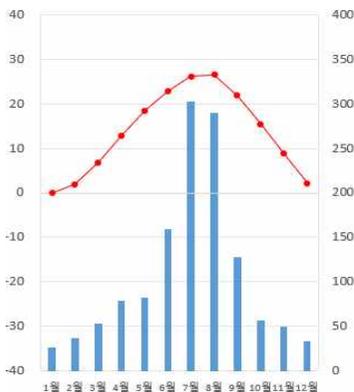
은 임실군 관촌면과 완주군 상관면의 경계를 이루는 슬치(250m) 부근에서 발원한 후 남관, 신리를 지나 대성동의 승암산과 남고산의 협곡을 통과한 후 시가지의 중심을 남동쪽에서 북서쪽을 관통한다. 삼천은 노령산맥의 북부를 흐르는 섬진강의 북편 분수령인 임실군 운암면과 완주군 구이면의 경계에서 시작하여 전주시 서부 지역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다가 추천대에서 전주천에 유입되고 다시 삼례교 부근에서 고산천과 합류하여 만경강을 이룬다. 이에 유입하는 지류들로는 인후동의 모래내, 서학동의 반서천과 남고천, 우아동의 아중천이 있으나 규모가 작거나 많은 구간이 복개되었다.

전주시는 대부분 지역이 완주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은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있는 완주군 이서면과 김제시에 접하고 있다. 시가지의 대부분은 전주천의 총적토 위에 건설되어 대부분 평탄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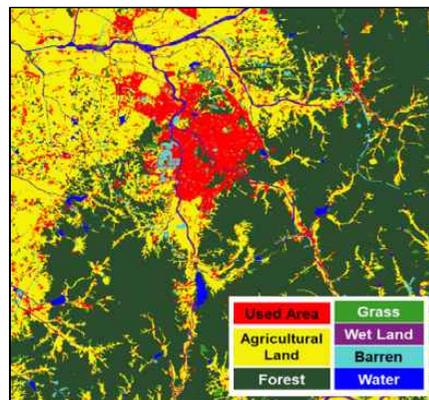
## 2) 전주의 기후

전주는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고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높은 편이다. 전주의 남동쪽에 산림 지역이 있고 북서쪽 평지에 농업 지역이 위치하며 전주시의 많은 부분이 시가화되었다. 최근 30년(1991년~2020년)의 기후 평년값을 보면, 전주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3.3°C로 인근의 군산, 임실, 남원보다 높다. 반면, 풍속이 비교적 약한 편이며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의 비율이 높다.

다른 지역보다 자연재해의 빈도가 적은 편이며, 태풍과 폭설의 피해가 비슷한 위도대의 지역보다 덜 발생한다. 그러나 폭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전주는 지형상 북서쪽이 열려있는 분지이며 찬 공기는 북동쪽에서 들어와 서쪽으로 주로 빠져나간다. 그런데 1990년대에 서신동, 중화산동, 삼천동, 평화동이 개발되면서 전주천 변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섰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분지 서쪽의 상당 부분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고층 건축물이 늘면서 바람길이 막히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가 개발되면서 외부에서 바람이 전주 분지 내로 유입되고 더워진 공기가 빠져나가기 더 어려워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도시 개발로 인해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 인공 피복이 늘어난 것, 자동차의 통행량이 늘어난 것도 폭염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프 3) 전주의 기후 그래프



(지도 6) 전주의 토지 피복도

### 3) 전주의 역사

#### (1) 고려시대까지의 전주

견훤이 900년 전주에 후백제를 세웠다. 전주성(견훤성, 지방 기념물 제44호)은 승암산에서 기린봉 능선을 타고 북쪽으로 흐르는 구릉지대에 펼쳐져 있었다.

고려 성종 때(983년) 12목 체제를 마련했는데, 전라도에는 전주목과 나주목이 설치되었다. 현종 때(1018년) 5도·양계 체제로 개편되면서, 전주권과 나주권이 합쳐져 '전라도'가 되었다.

#### (2) 조선시대의 전주

전주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다. 조선은 건국 후 전주에 태조어진을 모시고 '경기전'4)을 지어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조선시대 전주에는 감영이 있었다. 감영이란 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관청으로 '감사(監司)가 있는 영문(營門)'이라는 뜻이다. 감영은 지역의 육군과 수군을 지휘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행정 관청이었다. 조선 팔도마다 임명된 관찰사는 각 지역의 행정은 물론이고 군사와 사법, 치안에 이르기까지 왕을 대신해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1985년(고종 32년)에 감영이 폐지된다.

관찰사는 종2품 관직으로 대부분 문과 급제자를 임용했다. 당시 관찰사의 임기는 1년 이었고, 1669년(현종 10년)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했다가, 1677년(숙종 3년)에 다시 1년으로 정하였다.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전라도의 중심지인 전주에 설치되어 전라도 관찰사가 근무하던 관청이다. 1402년(태종 2년) 이후 설치했다 추정되며, 일제강점기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1911년 전북도청을 지었다. 2005년 전북도청을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했고, 전라감영은 2019년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복원되었다.

한편 객사는 공무원을 대접하고 숙박시키면서 임금님의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임금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모시고 예를 올리던 곳이었다. 전주객사는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조선 전기의 건축물로 제583호이다.

전주 객사 정면에는 '풍패지관(豐沛之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풍패지관은 조선을 세운 태조(이성계)의 출생지에 만들어진 객사라는 의미이다. 풍패란 중국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유방)의 고향이다. 한고조가 그의 고향인 중국의 강소성 패현 풍읍에서 천하를 통일하고 왕위에 오르자, 그 뒤부터 임금님의 고향을 모두 풍패라 불렀다. 풍남문의 현판에 쓰인 풍패도 이 풍패에서 따 온 것이다. 전주 객사에 풍패라는 글씨를 사용한 것은 전주가 조선 왕조의 터전이자 임금님의 고향임을 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조선 왕조를 일으킨 태조 이성계를 기념하기 위한 또 다른 장소는 오목대이다. 오목대는 전주시 교동에 있는 조선시대 왕실 관련 유적지로서 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로 지정

---

4) 경기전(慶基殿)은 경사스런 터에 지은 궁궐이라는 뜻의 전각이다. 1410년(태종 10년) 전각을 지었고,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던 것을 1614년(광해군 6년)에 중건하였다. 경기전 북쪽에 조경묘가 있는데, 조경묘는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과 그 부인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한편 전주의 건지산에 전주 이씨의 시조인 이한의 묘소가 있는데, 이를 조경단이라고 한다.

되어 있다.

고려 우왕 6년(1380년) 금강에 침입한 왜구가 물러나면서 남원으로 내려오자 이성계가 이들을 맞아 운봉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성계는 돌아오는 길에 오목대에서 개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한다.

오목대에는 ‘태조고황제주필유지(太祖高皇帝駐蹕遺址)’(태조 이성계를 기념한다는 뜻)이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 기념비는 1900년에 세워진 것으로 앞면의 내용은 고종이 쓴 글씨이고, 뒷면의 글은 고종이 짓고 김영목이 썼다. 뒤늦게 대한제국 때 오목대에 비석을 마련한 이유는, 당시 오목대에 전동성당을 세우려는 천주교 측에 장소를 내주지 않으려는 전주의 유생들과 관찰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즉, 오목대에 비석을 미리 세워 조선 정부의 의미 있는 장소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천주교 측이 오목대에 전동성당을 세울 수 있는 여지를 미리 없앤 것이다.

### 여기서 잠깐!! -전주사고

전주사고는 1439년(세종 21년) 사헌부의 건의로 지금의 전북 전주시에 있던 경기전 안에 설치되었다.<sup>5)</sup> 처음에 실록들을 여러 차례 옮겨 보관하다가, 1445년 12월 서울 춘추관, 충주·전주·성주 사고에 각 1부씩 보관하게 하였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모두 불타고 4대 사고 가운데 전주사고의 실록만 남았는데, 여기에는 안의와 손흥록의 공이 컸다. 이들은 태인의 선비로 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현재의 김제시 금산면에 침입했다는 소문을 듣고, 전주로 달려왔다. 실록과 태조 영정을 수호하던 경기전 참봉 오희길 등과 상의해 태조부터 명종까지 13대에 걸친 실록 804권과 태조영정을 정읍 내장산으로 옮겼다. 다음 해 7월 조정에 인계할 때까지 14개월 동안 무사들이 번갈아 가며 지켰다.

조정에서 사관을 내장산에 파견해 실록과 영정을 해주·강화도·묘향산으로 옮겼다가 1603년 7월부터 다시 출판하였다. 전주사고의 실록 원본과 교정본 및 새로 출판한 3부를 합해 5부를 서울 춘추관과 마니산·태백산·묘향산·오대산에 사고를 지어 보관했다. 전주사고의 실록 원본은 마니산에 보관되었다. 만약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 원본마저 불에 타버렸다면,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복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손으로 필사하여 현재까지 계승된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3) 전주부성과 풍남문

전주부성은 1388년(고려 공양왕 원년)에 축조된 성이다. 전주는 고려와 조선시대 전라감영 소재지였고 조선왕조(전주 이씨)의 발상지였다. 전주의 방어와 통치를 위해 지어진 전주부성 내에 전라감영, 전주객사, 경기전, 조경묘, 향교 등 당시 전주의 핵심 시설들이 위치했다.

전주부성에는 네 개의 문이 있었는데, 공북문(북문)<sup>6)</sup>, 패서문(서문)<sup>7)</sup>, 풍남문(남문), 완

5) 조선 초기, 전주사고가 지어지기 전에는 승의사(현재의 한국전통문화전당 자리)라는 절에 실록을 보관하다가 후에 전주객사로 옮겨 보관했다.

6) 현재 전주 영화의 거리 GS25전주영화로점, 회전교차로

동문(동문)<sup>8)</sup>으로 불렸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철도와 신작로를 놓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일본인들은 전주부성의 벽과 문을 헐어버린다. 네 개의 문 중 풍남문만이 남아 있다.

풍남문은 전주시 전동에 있는 전주부성의 남문으로 보물 제308호이다. 1767년(영조 43년)에 큰 화재가 일어나 남문과 서문이 모두 불타버렸는데 9월에 부임한 전라도 관찰사 홍낙인이 새로 세우고는 남문을 풍남문, 서문을 패서문이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이 이름은 한나라 한고조(유방)의 고향 이름인 ‘풍패’를 따서 풍남문이라고 지었다고 상량문<sup>9)</sup>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풍남문은 종각, 포루 등이 일부 헐리고 지면이 묻히는 등 옛 모습이 크게 훼손되었지만, 1978년부터 3년간 보수 공사로 다시 원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지도 7) 전주부성과 역사적 경관의 위치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주부성이며, '전주풍패지관'이 전주 객사임.

#### (4) 전동성당과 전주한옥마을

전동성당은 전주에 세워진 가장 오래된 성장이자, 전라도 최초로 세워진 서양식(로마네스크 양식) 건물이다. 사적 제288호인 전동성당은 풍남문 밖에 있다. 조선 후기 약 100년 동안 일어났던 천주교 박해 때 전라도의 많은 신자가 순교한 자리에 성당이 세워졌다. 19세기 말에 프랑스인 보두네 신부가 들어와 현재의 위치에 있었던 민가를 사들여 임시 성당으로 삼았다. 도시를 중심으로 천주교를 선교하기 위해 오목대에 큰 성당을 세우려 했지만, 당시 유생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1908년 서울 명동성당의 내부를 건축한 프와넬 신부의 설계로 지금의 자리에 전동성

7) 현재 전주 보건소와 전주 성광교회 사이의 거리  
8) CU 한옥마을 동문점, 세븐일레븐 전주한옥마을점 사거리  
9) 건물을 지은 이유과 과정을 기록한 글

당이 착공되었다. 전동성당은 1914년 외관 공사가 끝났으며, 이후로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 1931년에 완공되었다. 1937년~1957년 천주교 전주교구의 주교가 담당하던 성당이었으며, 건축물의 아름다움 때문에 영화의 촬영지나 결혼식 장소로 자주 쓰이고 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곳으로 일제에 대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전주시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분포한 한옥마을을 '전주한옥마을'이라고 한다. 일제에 의해 전주부성이 철거되면서 전주부성의 서문 근처에 거주하던 일본 상인들이 성안의 다가동과 중앙동으로 들어왔다.<sup>10)</sup> 1930년을 전후로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전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반발로 동문과 남문 근처의 교동, 그리고 풍남동 일대에 한옥을 짓기 시작했다. 참고로 서울 북촌에 있는 한옥마을은 전주한옥마을과 달리 1930년대 당시 경성 지역의 부자들이 한옥을 지으면서 형성되었다.

### (5) 풍남동에 있던 전주여고와 전주한옥마을

1910년대는 근대 서당의 전성기로서 서당교육이 활성화되었다. 이는 일제에 국권이 넘어가면서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기 꺼리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신식교육을 받아야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까지 더해져 신식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당시 전주에는 대한제국 때 개교한 신흥학교와 기전학교가 남녀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기 때문에 전주의 유림들이나 기독교를 꺼리는 주민들이 자녀를 입학시키기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이에 새로운 학교의 설립이 지역 유림 사이에서 숙원 사업이 되었고 1919년 관립전주보통학교<sup>11)</sup>가 개교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학교 설립이 과제로 남아 있었는데, 전주의 유지였던 이강원, 윤상언, 김응두 등이 여학교 설립 운동을 했고 총독부와 교섭을 했다. 그 노력 끝에 1926년 전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가 현재의 풍남동 라한호텔 자리에 세워진다.<sup>12)</sup>

1960~70년대 명문 학교가 모여 있던 전주한옥마을은 전주의 교육 거점 역할을 했다. 당시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중앙초, 성심여중·고, 전주여고, 북중학교, 전주고, 전주공업전문학교 등 학교가 있었다. 당시 지방의 지주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풍남동 일대에 집을 사고, 지방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은 전주한옥마을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면서 공부했다고 한다.

근대 도시형 한옥들로 형성된 전주한옥마을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주의 부촌이었다. 문화연필, 백양 메리야스 같은 유명 기업이 전주한옥마을에 자리 잡았다. 문화연필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생긴 연필공장으로 1949년 전주시 완산구 교동 79번지에 창업하여 1978년 팔복동으로 이전하기까지 전주한옥마을에 자리했다. 내의류 업체 BYC의 옛 상표인 백양 메리야스를 제조하던 생산시설이 1980년대까지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했었다.

10) 이후 1930년대까지 3차에 걸친 시구개정(市區改正)에 의해 전주의 시가지가 격자화되고 상권이 확장되면서, 서문 일대에서만 번성하던 일본 상인들이 전주 최대의 상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11) 전주고등학교의 전신

12) 1951년에 전주여자고등학교(3년제)로 바뀌었고, 1982년에 전주시 고등학교 입시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점차 주거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주한옥마을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즈음 1974년 전주여고는 풍남동 구 교사에서 인후동 현 교사로 이전했다.<sup>13)</sup>

한편 전주한옥마을은 1977년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한옥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마을이 급격히 공동화되었다. 건축 규제가 강해 주민들의 반발이 높았기 때문이다. 1987년과 1997년 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주한옥마을에 양옥이 다수 들어섰지만, 이후 건설경기 불황과 IMF의 여파로 신규 가옥이 많이 지어지지 않아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96년 우리나라가 2002 한·일 월드컵을 유치하고 1997년 전주가 개최 도시로 선정되면서 전주한옥마을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계인이 전주를 찾아올 때를 대비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제시함으로써 전통문화 도시 전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자는 의도였다. 이에 전주한옥마을에 보기 좋은 한옥들과 다양한 체험시설이 늘어나고 은행로에 실개천이 놓이는 등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한옥 730여 채가 밀집한 전주 한옥마을은 국제 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세계 최초 도시형 국제 슬로시티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에 재지정되었다. 그리고 전주한옥마을은 국제적 관광 명소가 되어 한 해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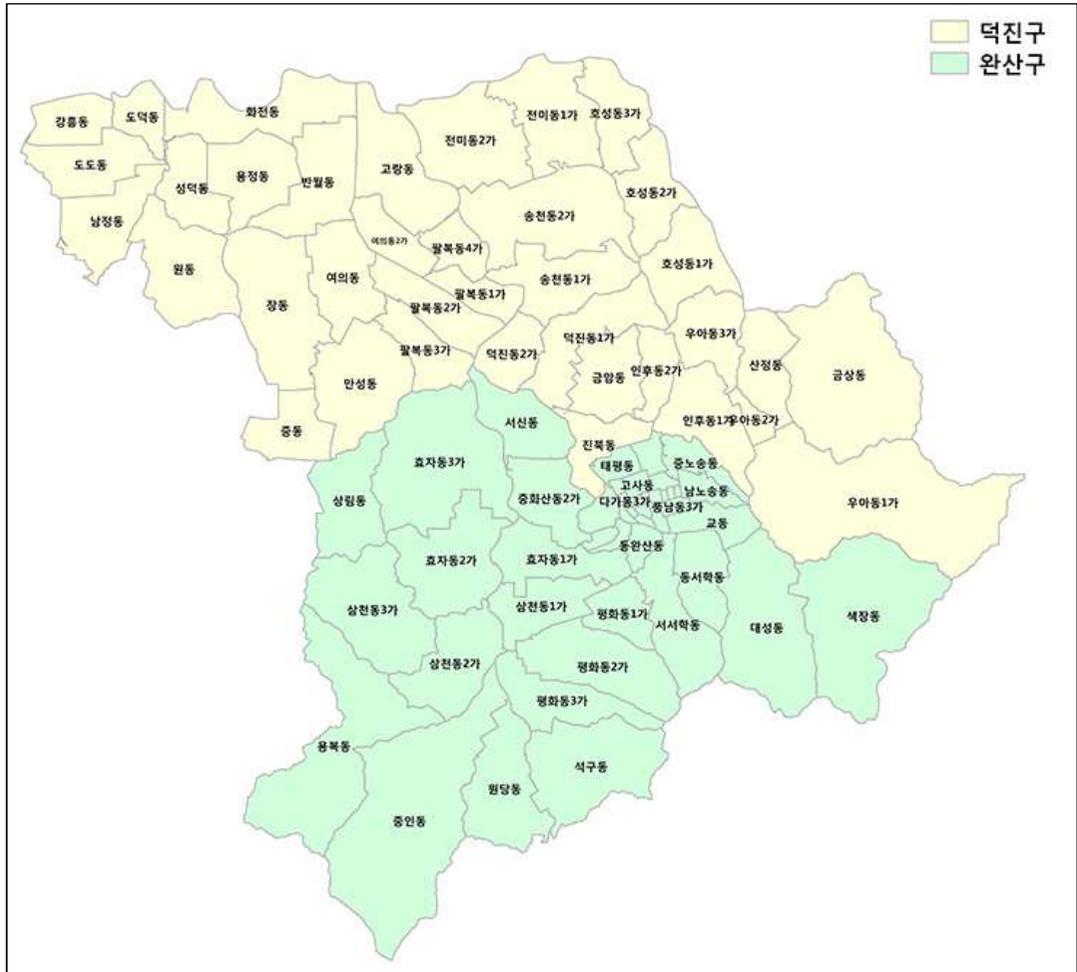
13)당시 풍남동 전주여고 교사 북쪽에 전주여중 교사가 있었다. 일류 중학교 입시가 과열되자, 1969년 중학 입시 제도가 폐지되기 시작했고 전주는 1970년 중학 입시 제도가 폐지되었다.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중학교에 무시험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3년 안에 일류 중학교의 학생 모집을 단계적으로 중단시켰다. 당시 전주에서는 전주북중과 전주여중이 일류 중학교였고, 1972년 1월 폐교해 각각 전주고와 전주여고에 흡수되었다. 라한 호텔 북쪽의 한옥마을 공영 주차장이 과거 전주여중이 있던 곳이다.

#### 4) 전주의 행정구역

완산구		덕진구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19개동	46개 동	16개동	37개 동		
중앙동	중앙동1가~4가	진북동	진북동		
	다가동	인후1동	인후1가~2가		
	고사동	인후2동			
	태평동	인후3동			
풍남동	경원동1가~3가	덕진동	덕진동1가~2가		
	풍남동1가~3가	금암1동	금암동		
	전동1가, 3가	금암2동			
	교동	팔복동	팔복동1가~4가		
노송동	중노송동	우아1동	우아동 3가		
	남노송동	우아2동	아우동1가~3가		
	서노송동		산정동, 금산동		
완산동	동완상동	호성동	호성동1가~3가		
	서완산동1가~2가	송천1동	송천동1가~2가		
동서학동	동서학동	송천2동	송천동1가~2가		
	대성동		전미동1가~2가		
	색장동		반월동 화전동 용전동 성덕동 원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 고량동		
서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동1가~2가	용전동			
중화산2동		성덕동			
평화1동	평화동1가	조촌동		원동	
	석구동			도도동	
평화2동	원당동			강흥동	
서신동	서신동			도덕동	
삼천1동	삼천동1가			여의동	남정동
삼천2동					고량동
삼천3동	삼천동1가~3가		여의동, 여의동2가		
	중인동	만성동			
	용복동	장동			
효자1동	효자동1가~3가	혁신동	중동, 장동, 만성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동2가~3가 상림동			
효자5동					

(표 3) 전주시의 행정동과 법정동(2023년, 전주시)

전주시의 행정구역은 덕진구와 완산구로 나뉘어 있다. 2023년 기준 덕진구는 16개의 행정동과<sup>14)</sup> 37개의 법정동<sup>15)</sup>으로 이루어져 있고, 완산구는 19개의 행정동과 46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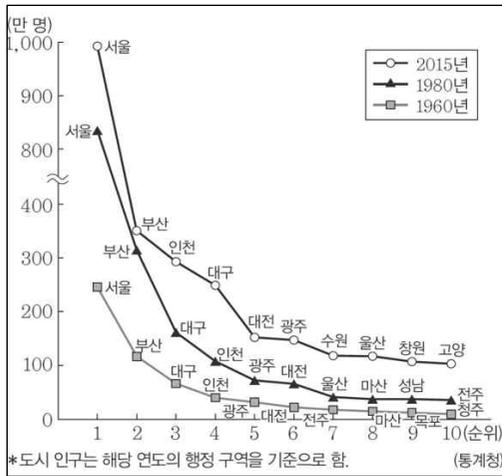
(지도 8) 전주시의 행정구역(2023년 법정동 기준, 전주시)

14) 행정동은 도시 확장, 인구 이동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행정 능력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중심'의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의 관할 구역이다. 즉, 행정 편의상의 동으로, 동장의 관할 구역이다. 예) 동주민센터 명칭 앞에 사용하는 동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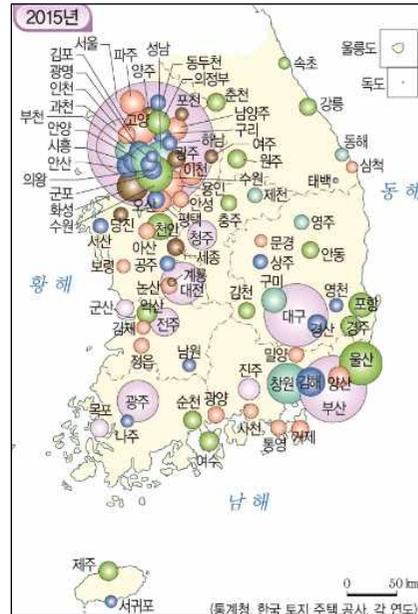
15) 법정동은 정부 기관의 모든 문서와 재산권 및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 행위 때 이용되는 것으로 '주소로 표시'되는 최하 단위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즉, 공무상 등으로, 법정 구역이다. 예)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동의 명칭

## 2. 전주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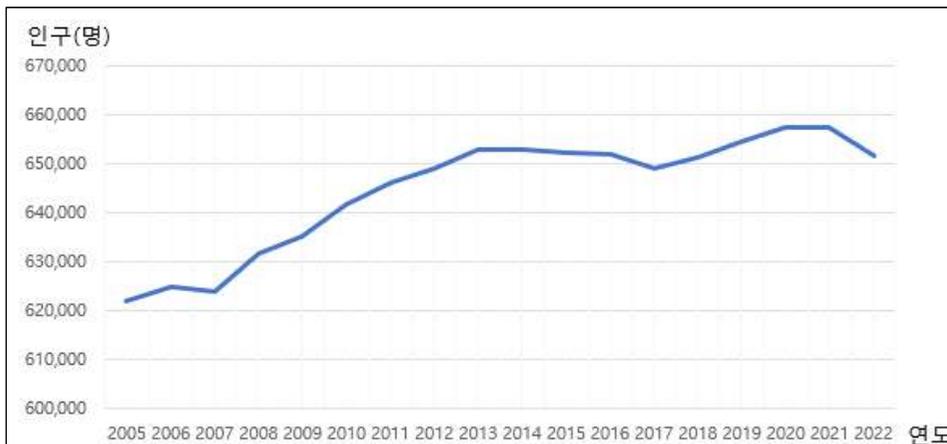
인구수 기준 전주는 1960년 7번째로 큰 도시였고, 1980년 10번째로 큰 도시였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고 수도권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화·도시화가 이뤄지면서 전주는 40년 동안 낮은 규모의 인구 성장률을 보였다. 예컨대 비슷한 면적의 경기도 고양시(267km<sup>2</sup>)는 1990~2023년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229,859명 → 1,079,277명), 전주시(206km<sup>2</sup>)는 같은 시기 동안 인구가 15만 명 증가했을 뿐이다(518,478명 → 655,601명)



(그래프 4) 도시별 인구 순위



(지도 9) 우리나라 도시 분포  
(인구가 많을수록 원의 반지름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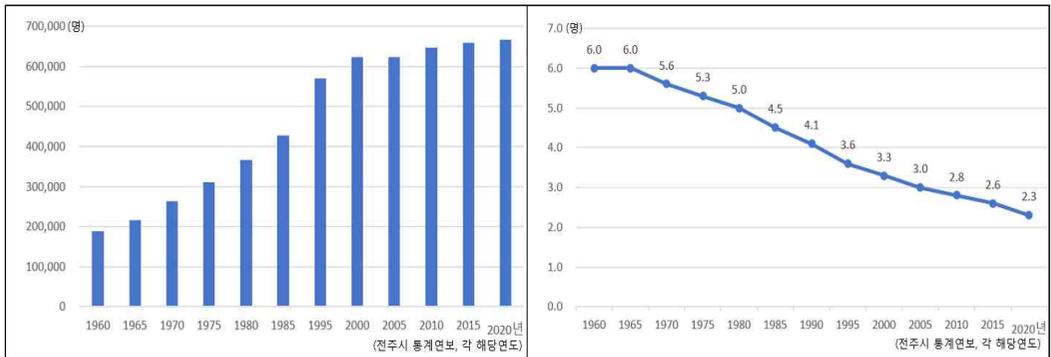


(그래프 5) 전주시의 인구 변화(2005~2022년)

그동안 전북의 다른 시·군에서 전주시로 전입하는 인구가 있어 전주의 인구가 2020년까지 증가했지만,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커지면서 2021년부터 전주의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비슷한 면적의 다른 도시보다 전주의 인구 증가 속도가 느렸고 최근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전주의 위치가 수도권에서 멀고, 인구 유입에 필요한 인구 저장소가 상대적으로 주변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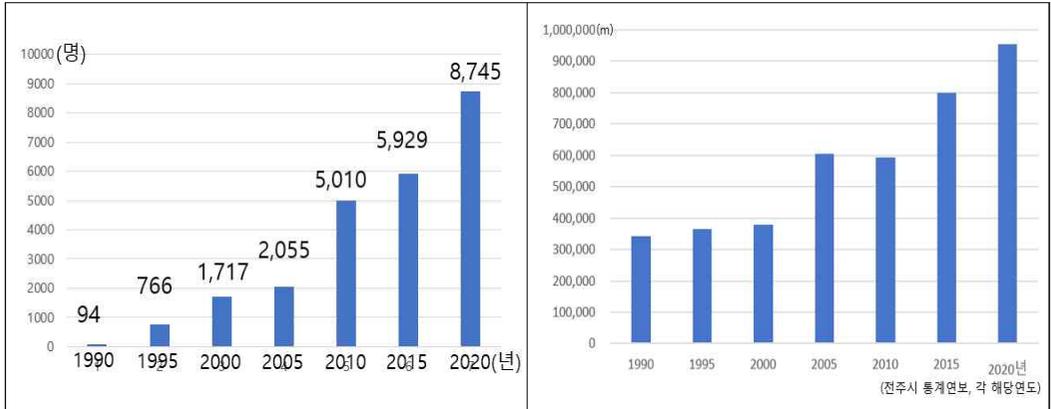
### <적용해보자> 전주시의 공간 변화

#### <자료 1> 전주시의 인구 변화 + 도로 현황



△ 전주시의 총 인구

△ 전주시의 세대 당 인구 수



△ 전주시의 외국인 수

△ 전주시 도로 현황

#### <자료 2> 전주시의 산업 구조 변화

연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996년	0.04%	14.41%	85.55%
2016년	0.10%	7.25%	92.66%

△ 전주시의 산업 구조

연도	관광사업체
1998년	109개
2017년	1,021개

△ 전주시에 등록된 관광사업체

<자료 3> 전주시의 인구 감소

전북 인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 선마저 붕괴된 가운데 전북의 중추 도시인 전주시 인구가 10년째 65만 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전주지역의 신도심 개발 수요 이후 인구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주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3월 말 현재 657,064명으로 전월 대비 934명이 감소했다. 전주시 인구는 지난 2011년 11월 월별 인구 기준 65만 명을 처음 돌파한 이후 10년이 넘도록 65만 명의 벽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연말 기준 전주시 인구가 65만 명을 처음 돌파한 것은 지난 2013년(650,082명)이다. 연도별 전주시 인구는 2012년 648,863명, 2013년 650,082명, 2014년 652,877명, 2015년 658,211명 등 65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648,964명) 64만 명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전주시 인구는 2018년 658,96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증감세를 계속 유지하며 3월 말 현재 657,064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북 인구는 3월 말 1,797,490명으로 180만 명이 처음 붕괴된 상태다. 시·군 중 전주시 인구가 934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그동안 전주시 인구는 전북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소폭 증가와 보합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혁신도시 개발과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각종 신도심 개발로 지역 내 '인구 빨대 현상'에서 기인한 일종의 기저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략)...

외부 인구 유입의 가장 실질적인 효과인 기업을 유치할 산업 용지도 부족한 것이 전주의 현주소이다. 전주에 주소지를 두고 전주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가운데 신도심 개발수요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인구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출처 : 전민일보, 04.12.

Q1. <자료 1>을 통해 알 수 있는 전주시의 변화를 정리해 보자.

총 인구의 변화	
세대 당 인구 수의 변화	
외국인 인구수의 변화	
도로 면적의 변화	

Q2. <자료 2>를 통해 알 수 있는 전주시의 변화를 정리해 보자.

산업 구조의 변화	
관광 사업체 수의 변화	

Q3. <자료 3>을 보고 전주시의 인구 변화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

.....

.....

Q4. <자료 3>을 참고하여 전주시의 발전 방안을 제안해 보자.

.....

.....

<참고>-전주시 동별 인구 현황(2022.12.)

구분		인구수(주민등록 인구)		
		계 (명)	남 (명)	여 (명)
전주시		651,495	320,265	331,230
완산구		332,573	161,835	170,738
1	중앙동	9,690	4,846	4,844
2	풍남동	3,864	1,937	1,927
3	노송동	11,130	5,430	5,700
4	완산동	5,218	2,554	2,664
5	동서학동	6,134	3,034	3,100
6	서서학동	8,346	4,056	4,290
7	중화산1동	13,903	6,667	7,236
8	중화산2동	19,369	9,699	9,670
9	평화1동	12,413	5,996	6,417
10	평화2동	44,724	21,498	23,226
11	서신동	39,973	19,416	20,557
12	삼천1동	10,997	5,315	5,682
13	삼천2동	13,171	6,331	6,840
14	삼천3동	21,356	10,277	11,079
15	효자1동	12,943	6,218	6,725
16	효자2동	9,603	4,611	4,992
17	효자3동	14,325	6,731	7,594
18	효자4동	38,722	18,826	19,896
19	효자5동	36,692	18,393	18,299
덕진구		318,922	158,430	160,492
1	진북동	13,484	6,560	6,924
2	인후1동	17,906	8,584	9,322
3	인후2동	10,863	5,403	5,460
4	인후3동	31,209	15,363	15,846
5	덕진동	20,665	10,498	10,167
6	금암1동	7,778	4,224	3,554
7	금암2동	9,595	4,674	4,921
8	팔복동	7,682	4,178	3,504
9	우아1동	12,541	6,258	6,283
10	우아2동	14,276	7,461	6,815
11	호성동	19,466	9,260	10,206
12	송천1동	63,716	31,500	32,216
13	송천2동	25,654	12,491	13,163
14	조촌동	12,297	6,319	5,978
15	여의동	31,781	15,928	15,853
16	혁신동	20,009	9,729	10,280

<참고>-우리나라 도시 인구 순위(2022.12. 주민등록 인구 기준)

순위	도시	인구 (명)	비고
1	서울특별시	9,428,372	수도
2	부산광역시	3,317,812	
3	대구광역시	2,363,691	2023년 대구·군위 통합
4	인천광역시	2,967,314	
5	대전광역시	1,446,072	
6	광주광역시	1,431,050	
7	경기 수원시	1,216,349	특례시 <sup>16)</sup>
8	울산광역시	1,110,663	
9	경기 용인시	1,064,500	특례시
10	경기 고양시	1,044,242	특례시
11	경남 창원시	1,016,751	경남도청 소재지,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 특례시
12	경기 화성시	931,472	
13	경기 성남시	904,690	
14	충북 청주시	858,500	충북도청 소재지 2014년 청주·청원 통합
15	경기 부천시	810,142	
16	경기 남양주시	719,886	
17	충남 천안시	687,951	
18	전북 전주시	651,495	전북도청 소재지
19	경기 안산시	628,601	
20	경기 평택시	555,028	
21	경기 안양시	530,406	
22	경남 김해시	521,428	
23	경기 시흥시	500,970	
24	경북 포항시	488,155	
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77,808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재지
26	경기 파주시	474,681	
27	경기 김포시	463,576	
28	경기 의정부시	448,322	
29	경북 구미시	402,717	
30	경기 광주시	376,752	
31	세종특별자치시	375,392	
3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356,429	
33	경남 진주시	344,750	
34	경남 양산시	344,180	
35	충남 아산시	331,879	
36	경기 하남시	311,650	
3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87,582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재지
38	경기 광명시	278,246	
39	익산시	270,225	
40	전남 순천시	268,936	

16)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2020년 12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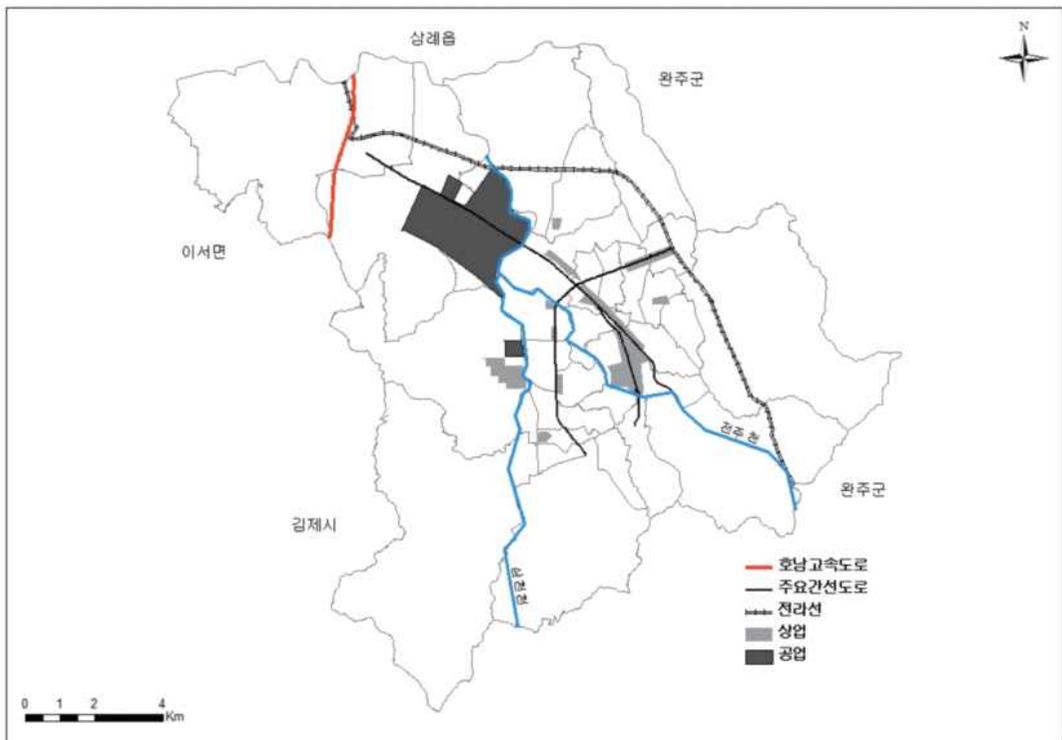
### 3. 전주의 도시 개발

#### 1) 1960년대~1980년대

전주시는 과거 성곽이 존재했던 사대문 안과 그 주변 지역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1960년대부터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주거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개발 사업이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196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과 팔달로의 개통으로 도심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확대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점차 북측으로 성장했다. 1980년대에는 전주역이 우아동으로 이전했고 백제대로가 개설되면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어져 동측으로 시가지가 확대되었다.

전주시를 양분하며 흐르는 전주천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축으로 개발된 오늘날의 도시 윤곽은 1990년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것이다. 도시 중앙의 팔달로와 이 도로와 동서로 교차하는 백제대로, 구 전라선 철도 자리에 건설된 기린대로가 팔달로와 연결되면서 전주시 교통망의 근간이 되었다. 이 교통망의 북쪽에는 공업단지, 중앙에는 주요 상가 지역과 사무 지역이 조성되었다.



(지도 10) 전주시 주요 교통로와 산업지구

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2022년 1월부터 특별시로 출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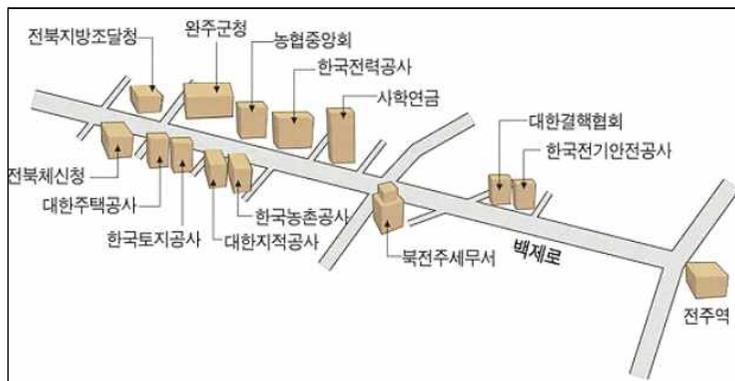
구분	지구명	개발연대			면적(천m <sup>2</sup> )	시행자	공사 기간
		60	70	80			
토지구획 정리사업	1지구	○			219	전주시	62~64년
	2지구	○			248	전주시	65~67년
	4지구	○			957	전주시	68~71년
	3지구		○		157	조합	77~83년
	6지구			○	1,202	전주시	86~90년
	안골지구			○	280	전주시	86~90년
택지개발 사업	효자지구			○	551	토지공사	83~84년
	화산지구			○	570	토지공사	86~88년
	삼천지구			○	715	토지공사	88~91년

(표 4) 전주시 택지개발 사업(1960~1980년대, 전주시)

### 여기서 잠깐!! -우리 학교 근처의 택지개발 사업은?

전주시 최초의 도시정비사업은 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으로 1961년 도시계획 결정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1964년 12월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 1지구가 모래내 시장 남서쪽의 진북동 부지<sup>17)</sup>이다. 1지구 사업 후 1974년에 전주여고가 인후동 현 교사로 이전했고, 1975년 1지구와 전주여고 사이에 모래내 시장이 조성되었다.

한편 1980년대 백제대로<sup>18)</sup>가 개통되고 1981년 전주역이 현 전주시청 자리에서 우아동으로 이전<sup>19)</sup>하면서 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가 실시되었다. 6지구는 백제대로 중 전주역~전북대학교병원까지 구간 주변을 말한다.<sup>20)</sup> 6지구에는 왕복 8~10차로의 백제대로를 따라 전북대학교병원, 완주군청, 전북지방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들어섰다. 이곳은 덕진 부도심 개발의 상징과 같던 곳이었다. 그러나 2003~2008년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6지구에 있던 전북지방우정청, 한국농촌공사 전북본부 등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했다. 6지구 배후에는 견훤왕공로를 따라 상가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들어서 있으며, 골목 안쪽에는 좁은 필지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산재해 있다. 6지구의 성장과 쇠퇴가 배후 지역의 지가에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된다.



(지도 11) 전주시 6지구의 기관들(2007년 기준)

## 2) 1990년~2020년

1990년 이후 다양한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교통축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면서 도시 내 주거지역의 분산을 유도하였다.

1990년대에는 백제대로가 남측으로 연장되고 서부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남서부 지역에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때 택지개발 사업은 전통적인 도심 주변에서 이루어졌으며, 인후1,2동, 우아1동, 서신동, 중화산동, 효자동, 삼천1,2동, 평화1동이 해당 지역이었다. 아중지구, 평화지구, 삼천2지구 등은 도시 중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도시의 외곽 지역은 아니었다.

2001~2010년 사이에 이루어진 택지개발 사업은 모두 1990년대 사업을 둘러싸고 이루어졌고, 택지개발이 분산되고 있었다. 즉, 2000년대 택지개발 사업은 이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도심 주변의 동들과 바로 인접한 내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인구가 도시 내부를 채우는 충전식 개발이었다.

2011년 이후 시행된 사업 지구 대부분은 전주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혁신지구처럼 전주시 경계를 넘는 개발 사업도 있다. 특히 인구의 교외화는 2011년 이후 수행되었던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에코시티<sup>21)</sup>, 효천지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되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는 여의동과 혁신동에, 에코시티는 송천1동에, 효천지구는 효자4동에 위치하는데, 이들 지역은 전주의 외곽에 입지함에도 2022년 기준 전주시내 주민등록 인구 면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

이처럼 전주시는 간선도로의 개설과 함께 주변 지역의 택지개발을 통해 대규모의 저렴한 토지가 확보되면서 외곽지역으로 시가지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반면 도심부는 공공기관 이전 등의 문제가 동반되면서 주거 기능의 공동화와 기능 축소 현상이 초래되었다. 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심 쇠퇴 문제가 심화되자, 전주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지 발전 축이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17) 1지구는 모래내를 사이에 두고 모래내 시장과 마주 보고 있다.

18) 전주시의 3대 대로는 기린대로, 동부대로, 백제대로이다. 백제대로는 전주역에서 꽃밭정이 사거리(평화동 사거리)에 이르는 총 연장 8.6km, 왕복 6~10차로의 간선도로이다. 전주시내에서 가장 도로 폭이 넓으며, 2015년 기준 하루 통행 차량이 12만 대에 육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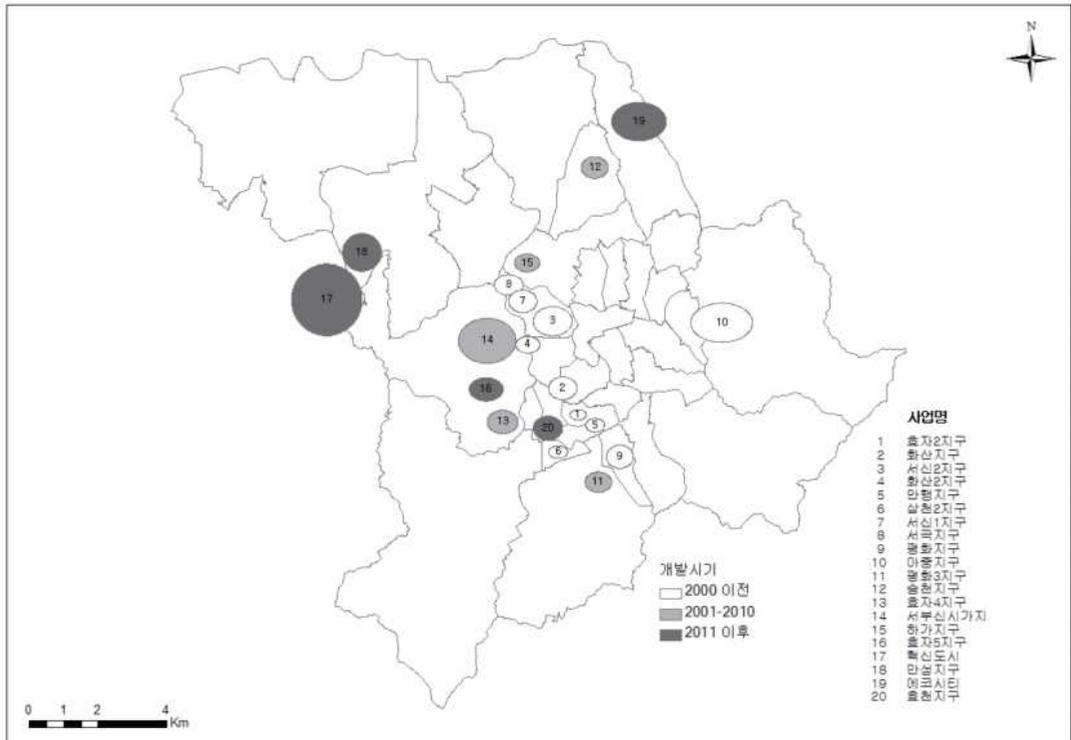
19) 1980년대 이전 전라선은 전주시내를 관통했다. 지금의 덕진광장 자리에 있었던 덕진역에서 전북대 구 정문 앞으로도 철도가 지났고, 기린로는 그 철도가 있던 자리이며, 전주시청 자리에는 전주역이 있었다. 옛 기차길 터널인 '한벽굴'은 일제강점기에 만든 전라선의 터널이었다.

20) 전주여고에서 모래내6길, 견훤중앙로를 따라 북쪽으로 도보 10분 정도 이동하면 6지구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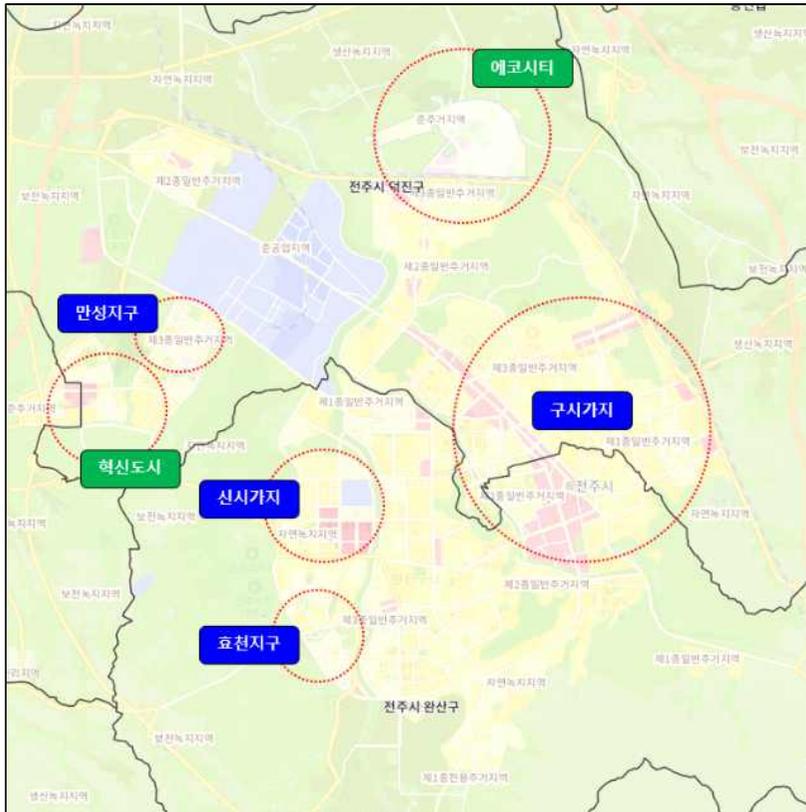
21) 제35보병사단 사령부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었으나, 2014년 임실군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송천동에 있던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제21항공단 예하 항공부대가 2019년 전주시 외곽인 도동동으로 이전하였다. 이에 해당 부지에 에코시티라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다.

1990~2000년		2001~2010년		2011~2020년	
사업명	면적(천m <sup>2</sup> )	사업명	면적(천m <sup>2</sup> )	사업명	면적(천m <sup>2</sup> )
효자2지구	120	평화3지구	314	혁신도시	3,764
화산지구	531	송천지구	262	만성지구	1,434
서신2지구	809	효자4지구	371	에코시티	1,998
화산2지구	236	서부신시가지	2,536	효천지구	673
안행지구	265	하기지구	426		
삼천2지구	160	효자5지구	502		
서신1지구	572				
서곡지구	574				
평화지구	413				
아중지구	2,043				
계	5,273		4,097		7,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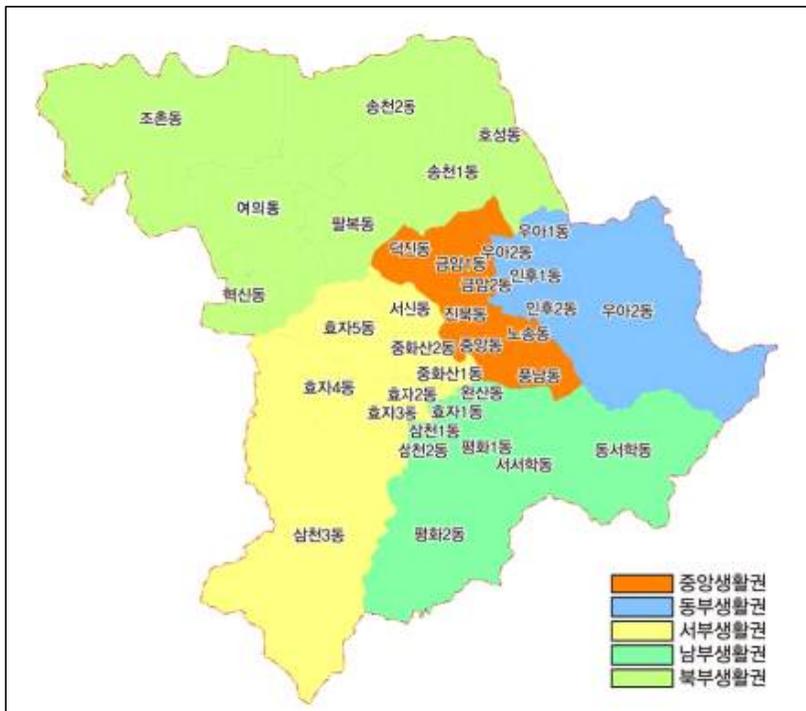
(표 5) 전주시 택지개발 사업(1990~2020년, 전주시)



(지도 12) 전주시 택지개발 사업(1990~2020년)



(지도 13) 2010년대에 개발된 전주시의 외곽 택지지구



(지도 14) 전주시 생활권 구분도

**여기서 잠깐!! -인구의 교외화로 인한 학교의 신설과 이전**

도시 내 인구 이동은 학교의 학생 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친다. 전주시 원도심 초등학교와 외곽 택지지구의 신설 초등학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교명	2008.4. 기준			2018.4. 기준		
		학급수	학생수	학급 인원	학급수	학생수	학급 인원
원도심학교	금암초	19	570	30.0	13	302	23.2
	금평초	16	484	30.3	11	210	19.1
	전주남초	33	1,081	32.8	19	457	24.1
	덕일초	23	758	33.0	16	345	21.6
	덕진초	18	541	30.1	9	169	18.8
	전주동초	19	573	30.2	12	224	18.7
	동북초	18	542	30.1	12	229	19.1
	완산서초	30	967	32.2	15	353	23.5
	전주초	11	250	22.7	12	217	18.1
	중앙초	13	340	26.2	10	175	17.5
	진북초	19	583	30.7	12	231	19.3
	평화초	30	989	33.0	17	387	22.8
	풍남초	20	605	30.2	9	180	20.0
	동신초	28	896	32.0	13	283	21.8
	완산초	9	260	28.9	6	87	14.5
	팔복초	9	209	23.2	6	91	15.2
	용덕초	6	58	9.7	6	45	7.5
평균(a)	18.9	570.9	28.5	11.6	234	19.1	
전주 평균(b)	29.7	953	32.1	21.5	541	25.2	
편차1(b-a)	▽10.8	▽382.1	▽3.6	▽9.9	▽307	▽6.1	
신설학교	새연초				24	650	27.1
	온빛초				53	1,537	29.0
	홍산초				20	372	18.6
	하가초				20	516	25.8
	화정초				39	1,016	26.1
	평균(c)				31.2	818	25.3
편차2(c-a)				△19.6	△584	△6.2	

(표 6) 원도심 초등학교와 신설 초등학교의 학급수, 학생수, 학급 인원 비교(2018년)

2008년 원도심 초등학교의 학급수, 학생수, 학급 인원은 전주 평균보다 적은 편이다. 2018년 원도심의 초등학교의 학급수, 학생수, 학급 인원이 2018년보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급당 인원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반면 2018년 효자지구, 혁신도시, 하가지구, 에코시티 등 외곽의 택지개발 지구 신설 초등학교를 보면, 학급수, 학생수, 학급 인원이 전주 평균보다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설 초등학교가 원도심 초등학교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6.2명 많아 밀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에코시티에 2018년 개교한 화정초의 경우, 2023년 학생수 1,704명, 학급 인원 26.6명이다. 같은 택지개발지구에 2020년 개교한 자연초의 경우, 2023년 학생 수가 1,613명, 학급 인원이 26.4명이다. 두 학교 모두 전주시내에서 전교생이 가장 많고 과밀한 학교이다. 지금도 에코시티에 신설 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2015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 중인 학교 총량제로 인해 신설 학교를 개교하기에도 쉽지 않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가 아닌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로 배정받는 학생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부가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중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원도심의 두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을 걸어 주민 간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다. 학교 총량제 때문에 외곽 지역의 중학교 신설이 어려워지자, 전라중처럼 원도심의 학교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초등학생은 근거리의 학교로 배정을 하고, 중학생은 근거리 3지망에서 무작위 배정을 하고 있다.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대부분 자신의 생활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평준화 지역인 전주시내 전체를 기준으로 14지망까지 선택해 배정하고 있다.<sup>22)</sup> 이로 인해 고등학생 중 자신이 생활해오던 권역에서 벗어나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지역 내 인구 이동이 학교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상급 학교 진학으로 학생들의 활동 반경이 달라질 수 있다. 학생들의 활동 반경은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22) 단, 체육특기자, 다자녀대상자,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국자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 대상자 등은 선배정을 받을 수 있다.

## 4. 지명, 시설의 이전 또는 신설, 학교를 통해 단서 찾기

### 1) ‘명주골’을 통해 단서 찾기

도당산 줄기를 타고 서쪽으로 뻗어나간 능선이 있는데, 이 산줄기 곳곳에 펼쳐졌던 마을이 명주골이다. 이 산줄기는 현재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뒷산이기도 한데, 조선시대에는 목포에서 서울로 가는 제1호 국도였다. 현재 전주동중학교 앞부분인 심방죽<sup>23)</sup>을 지나 올라오는 고개가 아리랑 고개인데, 이곳을 거쳐 봉동과 고산을 거쳐 금산으로 뻗어 서울까지 이어진 길이였다.<sup>24)</sup>

이 산줄기를 따라 금암동 분수대까지 이어지는 골짜기에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쳐서 명주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곳의 지명이 명주골이 되었다. 한때는 명주골에서 전북대까지 이어지는 임야가 뽕밭이었고 곳곳에 집들이 들어서고 동네를 이루었는데, 누에를 길러 최고급 비단인 명주를 생산해내던 곳이다. 전주의 특산품인 부채도 명주골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명주골은 소나무가 우거지고 인적이 드문 골짜기로 도적이 출몰하던 곳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명주골에 정착한 선비들이 화전만으로 연명하기 어렵게 되자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치기 시작했다. 차츰 선비들이 짠 품질 좋은 명주가 유명해지면서 명주를 사러 이 골짜기에 오는 사람들이 늘게 되자, 이곳을 명주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 명주골 부근에 공동묘지가 들어섰다. 그러나 1978년 전주시의 6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 2) 구 전주교도소 부지를 통해 단서 찾기

조선시대 전라감영에는 옥사가 있었고 원형옥이라고 불리었다. 당시 전라감찰사가 경찰행정 일부로서 관장하던 원형옥은 현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자리에 위치했다. 이후 1908년 진북동 322번지 일대에 전주형무소가 건축되었고, 1920년 전주감옥으로 승격했다. 1923년 전주형무소로 개칭했고, 일제강점기, 미군정,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많은 정치범들이 수감되었다.<sup>25)</sup> 이후 전주형무소를 전주교도소로 개칭했고, 1972년 평화동으로 이전했다.

---

23) 심방죽은 심씨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파놓은 방죽의 이름이었다. 현재 인후공원인 도당산 골짜기에서 흘러온 물을 가두어 방죽을 만든 것이다. 심방죽에서 부근의 논에 물을 공급했는데, 현재 전주생명과학고, 전북미래교육연구원, 전주여고, 전교조 전북지부, 동북초등학교, 모래내 시장은 당시 논이었다. 심방죽은 밀가루 방죽이라고도 불리었는데, 해방 후 미군정에서 방죽을 메워 농지로 만들 때에 품삯을 밀가루로 주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심방죽 자리에 국군보안사령부의 국군정보국 소속 육군 특무대가 만들어졌다. 후에 특무대가 보안대로 명칭을 바꿨고, 이 보안대가 완주군 이서면으로 옮겨가면서 심방죽 자리는 공터가 된다. 2003년에 이 자리에 인후 선별 아파트가 들어섰다.

24) 지금의 워브어울림 아파트의 전신인 인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산줄기가 없어졌고 아리랑 고개도 없어졌다. 황산을 허물어 전주 북일초등학교를 지었고 이 학교는 1987년 개교했다.

25) 제주 4·3사건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고, 6.25전쟁 때 정치범들이 이곳에 수감되어 무고하게 희생당하기도 했다.

구 전주교도소 부지는 현 모래내 시장의 건너편에 있다. 일제강점기~1960년대 구 전주교도소 부지 주변의 모습은 소설에도 반영되어 있다.

(중략) 이후동 큰 모래내에 사는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하루살이들로 이루어져 있는 변방의 동네인 데다가 간수들 역시 어린 날을 보냈던 일제시대, 그 시절에 곡물을 강탈당하여 먹을 게 없던 날들을 겪었을 터인즉, 혹은 6.25 전쟁을 통해 풀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시대를 살면서 허기에 관한 어린 싹들의 고통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형무소 부근 후미진 동네의 그리고 그네들 자식들의 어깨걸이인 배끓는 조무래기들이 무며 배추속을 캐먹을 적이면, 짐짓 탄청 부리듯 외면을 해 준 관대함을 가졌을 거라고 짐작을 하지만...

『비탈에 서서』, 한상준

진밭다리를 지나자 우리는 잠시 서서 형무소 죄수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죄수들은 흙을 가득 실은 무개화차(無蓋貨車)를 이제 언덕으로 밀어 올리기 위해 숨을 가다듬는 모양이다. 이 화차를 우리는 '도로꾸'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도로꾸는 비록 형무소 것이지만 우리 모래내의 명물이기도 하다. 탄광 같은 곳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거나 역 주변에서 겨우 볼 수 있는 이 차를 반데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래내 모래톱』, 이병천

일제강점기 때 모래내 일대가 전주의 외곽지역에 해당했기 때문에 기피 시설인 전주교도소가 근처에 들어섰지만, 인구의 증가로 전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전주교도소가 더 외곽인 평화동으로 이전했음을 알 수 있다. 전주교도소의 이전도 1974년 모래내 시장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 3) 시외버스 공동 정류장을 통해 단서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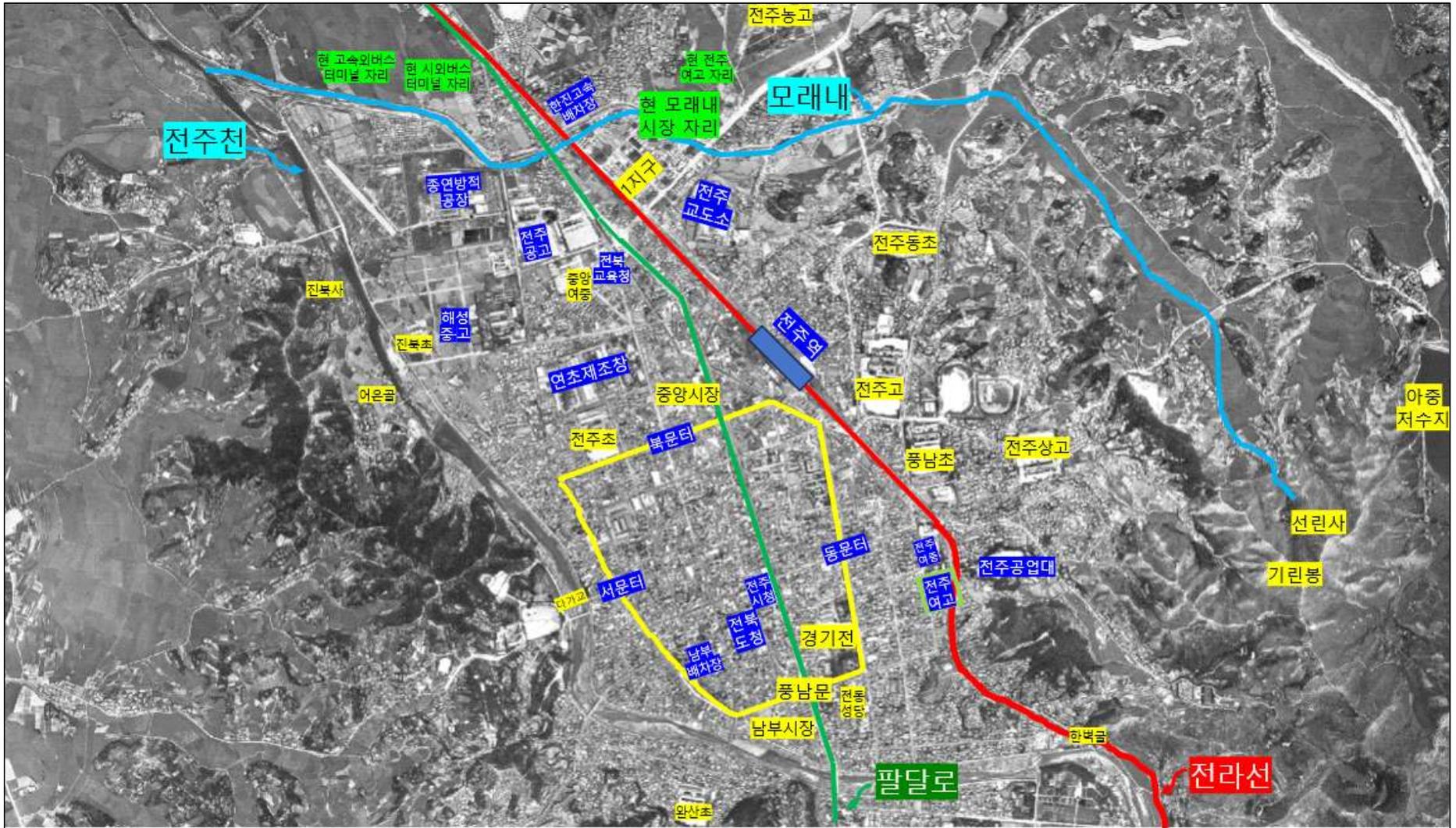
과거 전주에는 시외버스와 관련해 북부 배차장과 남부 배차장<sup>26)</sup>이 있었다고 한다. 1973년 북부 배차장과 남부 배차장이 폐쇄되고 현 금암동 부지에 시외버스 공동 정류장이 신설되었다. 당시 도심은 전주부성과 그 주변이었고, 시외버스 공동 정류장은 도심 바깥에 위치해 교통 상황이 복잡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주의 도시 성장, 차량과 교통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으로 시외버스 공동 정류장 주변의 교통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시외버스 정류장을 전주의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북부 배차장과 남부 배차장을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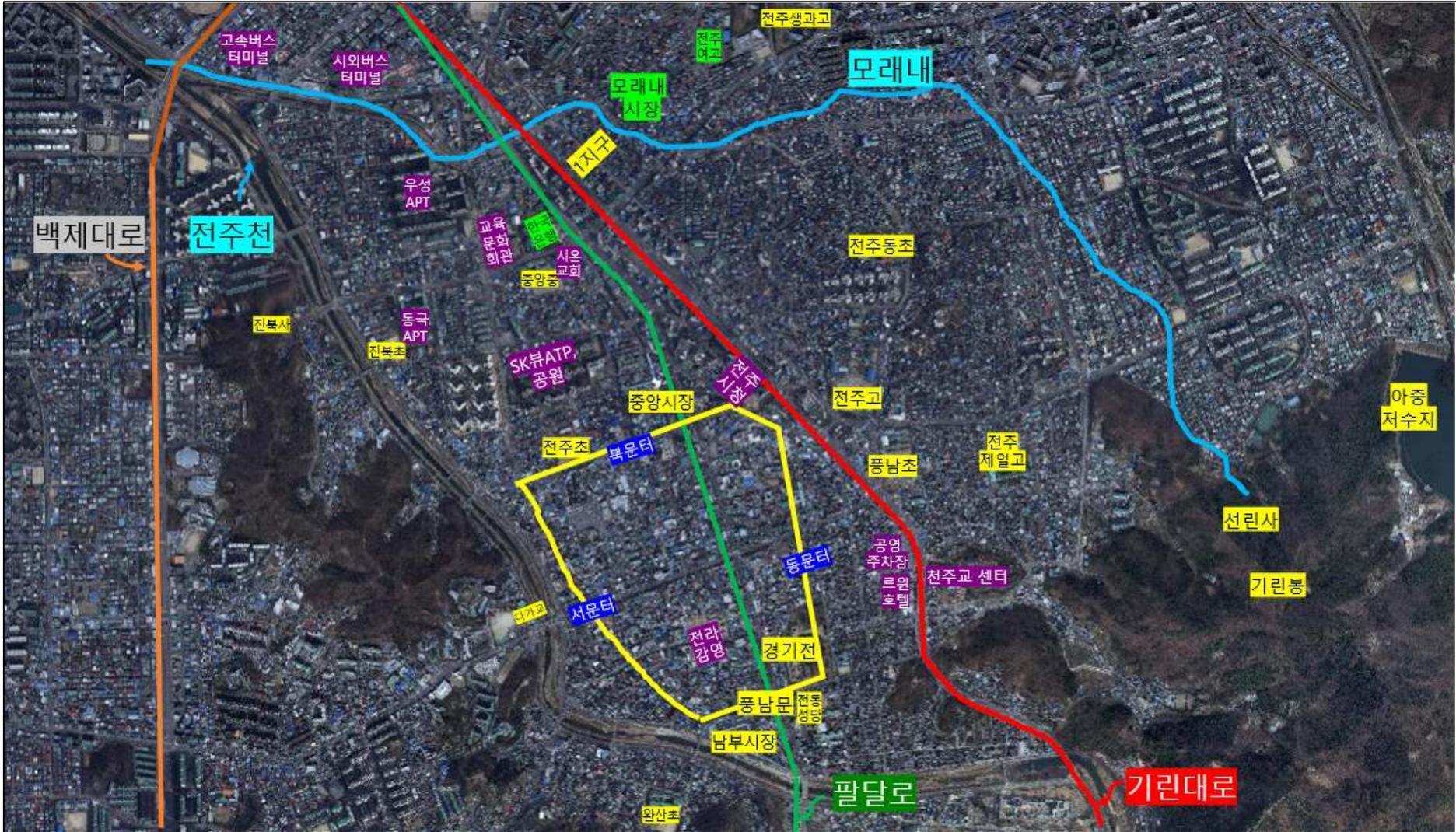
26) 남부 배차장은 전주부성 내 풍남문 주변에 있었으며, 이는 남문시장의 변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남부배차장과 남부시장을 연결했던 골목을 '고물자 골목'이라 부르는데, 한복집, 교복집, 한과점, 식당 등이 몰려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다.

#### 4) 모래내 시장 주변의 학교를 통해 추측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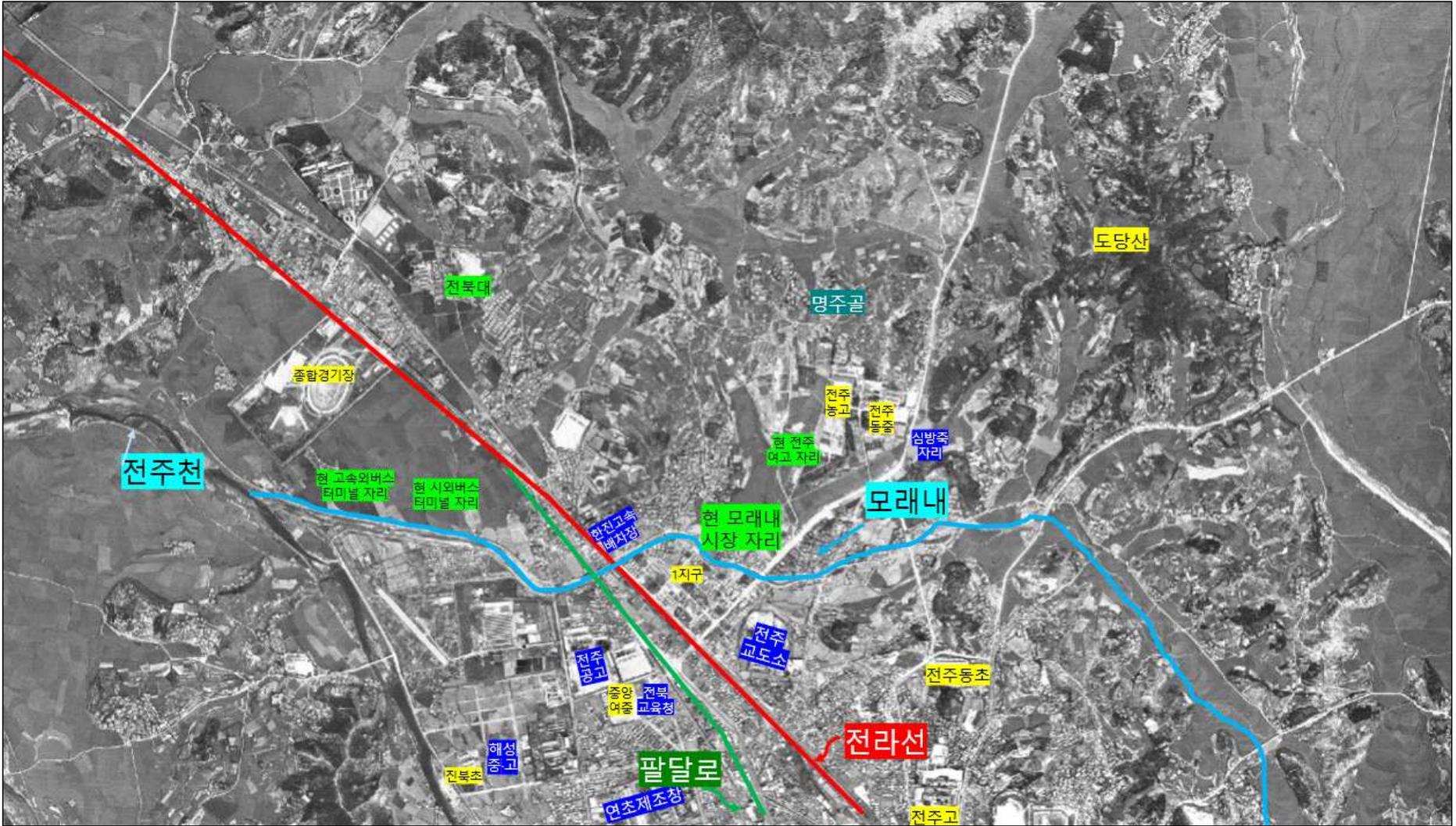
-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 1910년 전주농림학교 개교 → 1943년 현 위치로 교사를 신축 이전 → 1951년 전주농림고등학교로 개칭 → 1965년 전주동중학교와 분리 → 2006년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로 개칭 (2023년 학생 555명, 교원 62명)  
⇒ 일제강점기에 전주생명과학고 주변은 명주골이라 불리던 마을로 뽕밭이 분포하고 누에를 키워 명주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그리고 전주생명과학고 자리는 논이었다. 전주농림학교는 농업 실습을 위해 넓은 부지가 필요했고 일제강점기에 명주골 일대가 전주 외곽에 해당했으며 이곳에서 잠업과 배·사과 재배, 벼농사를 해오던 특성을 고려해 이곳으로 학교를 이전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 전주동중학교 : 1955년 전주농림고등학교에서 분리되어 개교 (2023년 학생 740명, 교원 58명)
- 전일중학교 : 1970년 전일여중으로 개교 → 2000년 남녀공학으로 전환(전일중) (2023년 학생 190명, 교원 34명)
- 전주동북초등학교 : 1971년 개교 (2023년 학생 154명, 교원 20명)  
⇒ 전주가 도시 성장을 하면서 전주부성과 그 주변만으로 토지가 부족했을 것이고 도심과 비교적 인접한 지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1962~1964년 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뤄지면서 모래내 시장과 인접한 1지구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1지구의 동편에 있는 모래내 주변의 인구도 증가했으리라 추측된다. 그로 인해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개교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도심의 인구 감소로 인해 전교생 수와 교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 전주여자고등학교 : 1926년 전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개교(풍남동) → 1951년 전주여자고등학교로 개칭 → 1974년 현 교사로 이전 (2023년 학생 703명, 교원 72명)  
⇒ 모래내 시장 자리의 맞은편에 있던 전주교도소가 1972년 평화동으로 이전하면서 주변의 지역 이미지와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을 것이다. 모래내를 따라 하류로 내려가면 나오는 금암동에 1973년 시외버스 공동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다른 시·군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이 영향으로 전주여고가 현 교사로 이전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최근 원도심의 인구가 감소했으나 1979년부터 전주에서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초·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학생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 전주유화학교 : 2002년 개교(전국 최초의 유치부 과정 공립특수학교)(2023년 학생 32명, 교사 11명)  
⇒ 전주농림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를 할당받아 개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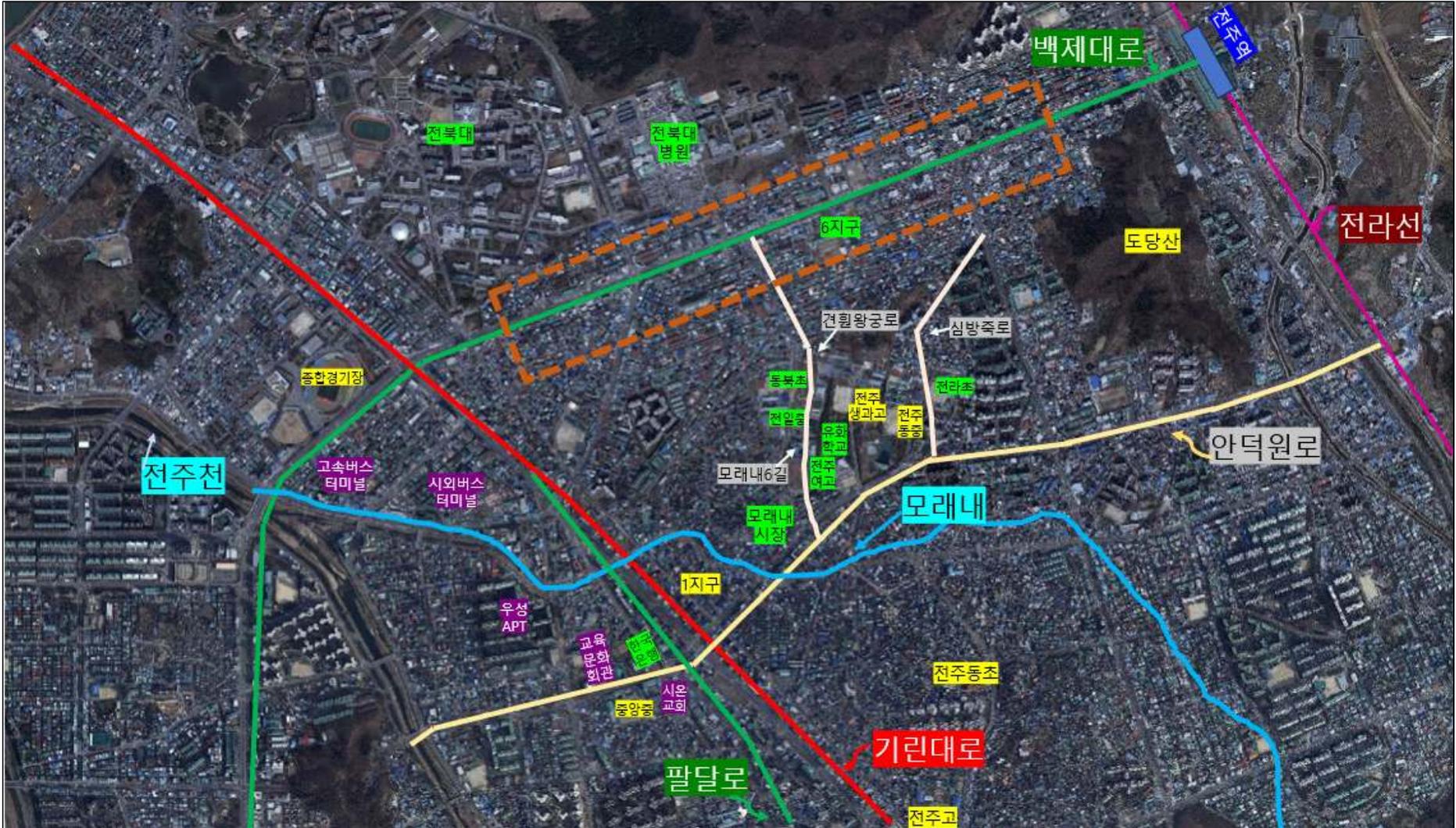
(지도 15) 1966년 전주부성과 모래내 주변 항공사진  
 (노란색 선은 전주부성의 성곽이며, 성곽은 일제강점기에 허물어지고 풍남문만이 남음.)



(지도 16) 2023년 전주부성과 모래내 주변 항공사진  
 (노란색 선은 전주부성의 성곽이며, 성곽은 일제강점기에 허물어지고 풍남문만이 남음.)



(지도 17) 1966년 모래내시장 자리와 우아동 전주역 자리 주변 항공사진



(지도 18) 2023년 모래내 시장과 우아동 전주역 주변 항공사진



# 모래내시장 토크아보기



## 1. 모래내

'모래내'는 '모래가 많이 쌓인 냇가'인 사천(沙川)을 뜻하는 우리 말이다. 하천의 이름이면서 일정 지역을 지칭하는 지명으로도 쓰이고 있다. 전주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강원 원주 등에도 '모래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sup>27)</sup>

전주시의 모래내 지역은 덕진구 인후동의 도당산과 선린사 사이의 물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을 모래내 지역과 작은 모래내 지역으로 나뉜다. 모래내 지역을 끼고 흐르는 도심의 샛강이 '모래내'로 불리었는데, 이 하천의 공식 명칭은 '건산천(乾山川)'이다.

건산천은 기린봉 북쪽 기슭의 선린사에서 발원한다. 인후동을 지나 서쪽으로 시가지를 통과하고, '야깡'이라 불리는 진북동(수협공판장) 옛 한진고속 정류장 부근에서 노송천과 만난다. 그리고 백제교에 이르러 전주천에 합류한다. '모래내'는 기린봉 북쪽으로 흐르는 실개천이 도매다리와 작은 모래내를 거쳐 모래내다리, 진밭다리로 이어지면서 유속이 느려 모래가 많이 쌓인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총 연장 5.25km 중 4.37km가 복개(覆蓋, 콘크리트로 덮인 상태)되어 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875m만 드러나 있다. 전주시 동부권의 개발로 안덕원로 4차선이 만들어진 뒤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하천을 덮어 지금은 모래와 다리는 볼 수 없고 이름만 남은 것이다.<sup>28)</sup>

## 2. 모래내시장

### 1) 모래내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전주에는 5대 시장이 있다. 전주부성의 정문인 풍남문 앞쪽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남부시장이 있고, 태평동의 중앙시장, 경원동의 동부시장, 인후동의 모래내시장, 효자동의 서부시장이 그것이다. 이중 모래내 시장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일대에 위치한 상설시장<sup>29)</sup>이다.

모래내 시장 뒤쪽으로 금암이 우뚝 솟아 바람을 막아주고 앞쪽에는 모래내(沙川)가 흘러,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이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1970년대 중반에 모래내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초반에는 금암동, 인후동, 진북동의 주민들이 모래내시장을 주로 이용했지만, 모래내시장이 진안, 장수, 무주, 완주의 고산, 봉동, 소양 지역과 교통

27) 예컨대 서울의 홍제천은 모래가 많이 쌓여 물이 모래 밑으로 흘렀다고 해서 모래내 또는 사천(沙川)으로 불리었다. 홍제천은 북한산에서 발원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서대문구·마포구를 흐르다 한강으로 합류한다. 조선시대 이 하천 연안에 중국의 사신이나 관리가 묵어가던 홍제원(弘濟院)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천을 홍제천(弘濟川)이라고 불렀다. 홍제천 연안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모래내 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다.

28) 과거 모래내 주변에는 과수원이 많아 배와 사과를 재배했다고 한다.

29) 상설시장은 교통의 발달,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정기시장의 쇠퇴와 함께 도시의 일정 지역을 점유하여 연중 상행위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육의전, 대구·의주의 약령시, 수원·마장동의 우시장 등의 특수 시장이 대표적인 전통 상설 시장이었으며, 현재의 상설 시장은 대개 구매력이 높은 인구 밀집 지역과 교통 요지에 발달해 있다.

로로 연결되어 있어 물건을 거래하기에 편리한 장소가 되었다. 모래내시장에서 전주 인근 평야의 곡물과 산간 지역의 산채류 등 신선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상설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모래내시장은 동부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과 달리 시장의 주변에 주거지가 있어서 주거 기능의 영향을 받는다.



(지도 19) 전주시 재래시장의 분포

구분	남부시장	중앙시장	동부시장	모래내시장	
위치	완산구 전동3가	완산구 태평동	완산구 경원동3가, 풍남동1,2가	덕진구 인후2동	
특성	규모	36,800m <sup>2</sup>	11,580m <sup>2</sup>	43,210m <sup>2</sup>	32,000m <sup>2</sup>
	상점수	320	245	250	253
	품목	훈수품, 어·육류, 농수산물	어·육류, 농수산물	농수산물, 주점	의류, 식품, 한약재 등
주변 지역 현황	경기전, 풍남문, 한옥마을	변화가	시청, 변화가	주거지	
시장의 성격	전국 규모의 시장	도시생활권 규모의 시장	주거생활권 규모의 시장	지역권 규모의 시장+근린시장	

(표 7) 전주시 주요 재래 시장

## 2) 모래내시장에서 무엇을 판매할까?

모래내시장에서는 채소, 과일, 정육, 생산, 건어물, 반찬, 의류, 잡화 등을 주로 거래하고 있다. 특히 전주와 가까운 완주군 일대에서 농산물이 직배송되어 모래내시장에서는 언제나 청정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 모래내시장에서는 농산물을 대형마트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모래내시장의 대부분의 점포에서 온누리 상품권,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택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시장에 대형 주차장이 완비되어있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시장과 달리 모래내 시장 주변에는 안덕원로를 따라 병·의원이 많이 입지해 있다. 때문에 전주뿐만 아니라 진안, 장수, 완주의 장년층과 노년층도 모래내 시장을 자주 찾는다.

## 3) 모래내시장의 노력

전주 모래내시장은 '강소(強小)시장'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강소시장은 규모가 작지만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sup>30)</sup>을 말한다.

고객 중심의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 농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완주 지역의 농가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완주에서 직배송된 농산물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모래내 시장에는 청년 상인들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점포는 한우 및 돼지 농가와 직거래를 해서 품질 높은 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며,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육가공 식품을 판매한다.

---

30) 재래시장은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갖가지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전통적 구조의 시장을 말한다. 전통시장이라고도 한다.



(지도 20) 2023년 모래내시장 인터넷 지도 (☆☆ 미션 2 관련 여기에 표시해주세요!!)

대분류	소분류	수(개)	대분류	소분류	수(개)	
금융	은행		교육	유학·이민		
	보험			학원		
	증권			학교		
	대출			직원연수·아카데미		
	카드			복사·팩스		
	자산운용		의료	종합병원		
	신용평가			성형외과		
	금융지주회사			피부과		
지식	회계		의료	치과		
	법무			안과		
	특허			건강검진의원		
	소프트웨어			그 외 개인병원		
	컨설팅			한의원		
	부동산			약국		
	인력관리			음식·유흥	음식점·주점	
	디자인				커피·음료·아이스크림	
	연구		제과·패스트푸드·떡집			
기타		오락				
전문 서비스 사무소	제조업		판매	백화점·면세점		
	유통			대형마트·SSM		
	건설·토목			편의점·슈퍼·매점		
	에너지			음·식료품		
	운송·보관			귀금속·화원·명품		
	시설관리·사업지원			이동전화·전자·컴퓨터		
	폐기물 처리			의류·잡화·화장품		
	여행사·레저			문구·서적		
정보통신	통신		생활	자동차·오토바이		
	광고·마케팅			가정용품		
	신문·출판		숙박	생활서비스		
	방송·프로그램 제작			개인미용		
	정보관리·여론조사		문화	호텔		
	이벤트·행사대행			영화관·공연·전시		
공공 및 비영리 단체	공공행정		분류 외			
	공기업		주차장			
	준정부기관					
	외국공관					
	협회 및 단체					

(표 8) 모래내시장 기능체 분류 (☆☆ 미션 2 관련 여기에 표시해주세요!!)

## ※ 참고 자료

- 『한국지리』 교과서, 유성종 외, 비상교육, 2017
- 『한국지리』 교과서, 신정엽 외, 천재교육, 2017
- 『한국지리』 교과서, 박철웅 외, 미래엔, 2017
- 『한국지리지-호남권』, 국토지리정보원, 2004
- 『도시탐험대 탐험동화 1 : 전주』, 최종구, 비유비유, 2018
- 「전주시 공간구조의 변화 : 1996~2014년」, 백영기 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 2017
- 「전주지역의 바람길 특성 분석 및 활용 방안」, 엄정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3(3), 2019
- 「주거재생이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모래내시장과 중앙하이츠를 중심으로」, 서종덕, 전북대 건축·도시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1
-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연구 : 전주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박영옥,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 「전주시 도시공간구조변화 과정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장광민, 전북대 건축·도시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9
- 전북도청(<https://www.jeonbuk.go.kr>)
- 전주시청(<https://www.jeonju.go.kr>)
- 전주생활지리정보(<http://map.jeonju.go.kr>)
- 전주다움(<https://daum.jeonju.go.kr>)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MEMO